

청동기시대 중요유적 조사성과 발표회

*온라인 Zoom 학술대회

○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 13:00~18:00

○ 후 원 : 대동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한국청동기학회

청동기시대 중요유적 조사성과 발표회

*온라인 Zoom 학술대회

○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 13:00~18:00

○ 후 원 : 대동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세종문화재연구원

◆ 개회 13:00

사회 :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 제1발표 13:00 ~ 13:30

청주 월오동유적

강명석(대한문화재연구원)

◆ 제2발표 13:30 ~ 14:00

전주 중인동유적

서창호(한반도문화재연구원)

◆ 제3발표 14:00 ~ 14:30

함양 한들 유적

황철현(한화문물연구원)

◆ 제4발표 14:30 ~ 15:00

화성 수영리 유적

문창희(겨레문화유산연구원)

◆ 휴식 15:00 ~ 15:20

◆ 제5발표 15:20 ~ 15:50

울산 상천리유적

윤재빈(울산문화재연구원)

◆ 제6발표 15:50 ~ 16:20

경주 천군동유적

김경수(대동문화재연구원)

◆ 제7발표 16:20 ~ 16:50

포항 필화리·월포리·조사리·유적

남승우(삼한문화재연구원)

◆ 총평 16:50~17:30

◆ 한국청동기학회 총회 17:30~18:00

화성 수영리 유적

- 화성 농진청등 종전부동산 5지구 내(1지점) 유적 -

문창희·이요한·박상준(겨레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개요

화성 수영리 유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개발 대상지에 속한다.

조사지역 일대는 2015년 경기문화재단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동 연구원에서 2016년 9월에 진행한 표본·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확인되면서 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발굴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2018년 6월 28일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 이다¹⁾.

- 허가번호 : 2018-0672호(2018.05.29.)
-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3-6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52,090㎡

II. 조사내용

조사지역의 지형은 유적 동쪽에 1km 가량 떨어진 고금산(98.9m)에서 서쪽으로 뻗는 능선에 속한다. 유적 주변으로는 북쪽의 칠보산(239m) 자락 아래에 흘러내리는 동화천과 고금산 동쪽의 황구지천 사이에 넓게 형성된 해발 60~100m 사이의 낮은 저산성 구릉지가 펼쳐져 있다. 조사지역 주변은 조선시대 당시 왕실 소유의 토지로서,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지형도에 의하면 조선 왕실 직속기관인 ‘이왕직목장(李王職牧場)²⁾’이 자리하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최근까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시험목초지 및 방목장’으로 활용되어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편이다.

조사지역이 넓은 연유로 조사지역 중앙의 구릉 정상부를 기점으로 남북방향으로 나누어 A·B지점으로 명명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의 토층은 구릉 정상부와 말단부 그리고 곡간부등 퇴적 위치에 따라 양상이 상이하다.

- 1) 겨레문화유산연구원(50%)·한강문화재단연구원(30%)·한성문화재단연구원(20%)이 공동으로 각 지점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원이 담당 한 시굴 10지점은 면적이 넓어 10-A, 10-B지점으로 분리하여 본 연구원이 10-A지점, 한강문화재단연구원이 10-B지점을 담당하였다.
- 2) 이왕직(李王職)은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순종(純宗)을 중심으로 하는 황실 구성원과 조식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 궁내성과 조선총독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고종과 순종 등의 왕족부터 궁(宮)·묘(廟)·능(陵)·원(園)·묘(墓)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 황실의 인물과 재산을 관리하였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71기·수혈 62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25기·수혈 8기·토기요 2기·폐기장 1기·구상유구 4기, 통일신라시대 목관묘 1기, 고려시대 주거지 1기·토광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5기·수혈 1기·탄요 1기·토광묘 98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48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Ⅲ. 조사성과

화성 수영리 유적에서 조성시기가 파악된 유구의 대다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토광묘로 대별된다. 본 장에서는 확인된 유구 가운데 출토 비율이 가장 높은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271기이다. 주거지는 해발 35m~60m 사이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주거지 깊이는 대략 30~110cm 가량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³⁾는 세장방형·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 등으로 다양하다. 평면형태가 확인 가능한 주거지는 총 211기로 세장방형 106기, 장방형 72기, 방형 15기, 말각방형 16기, 원형 2기이다. 또한,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2기와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25기도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된 주거지는 총 63기로, 중복 양상은 대체로 세장방형 주거지의 조성시기가 장방형계 및 방형 주거지보다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주혈·노지·벽구·저장공·유인수로 등이 확인된다.

주혈은 일정한 배치형태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벽가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세장방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벽에 걸쳐 있는 주혈도 관찰되었다.

노지는 세장방형 주거지의 경우 2~8기 가량 시설되어 있다. 배치 양상은 전반적으로 장축선상을 따라 일렬로 확인되나 주거지의 한쪽에 편재하거나 중앙부를 공지로 남기고 양쪽으로 시설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장방형 주거지에서는 1~3기 가량 시설되어 있으며 한쪽에 편재된 경우가 주를 이룬다. 노지의 조성방식은 수혈식과 평지식으로 구분되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혼재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벽구는 사면 상부 장벽 인근에서만 확인되는 경우와 단벽 일부에만 확인되는 경우, 외부 돌출구와 연결되어 시설된 경우가 확인된다.

저장공은 단벽이나 단벽 모서리에 위치한 예가 많으며, 일부 저장공은 장벽 중앙부에 연접하여 조성되기도 하였다. 저장공이 없는 경우 모서리에 대형의 토기를 비치하여 저장공간을 마련한 양상도 확인되었다.

유인수로는 A지점 36·40·84호(말각방형)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다. 36호의 경우 중앙의 작업공으로 5기의 구가 휘돌아 유입되는 형태가 특징적이다. 아울러 내부시설은 아니지만 말각방형과 원형 주거지(A지점 51·94호)에서는 회색점토로 바닥 전면을 다짐처리한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3)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장단비 2.5:1 초과는 세장방형, 1.25~2.5:1 사이는 장방형, 1.25:1 미만은 방형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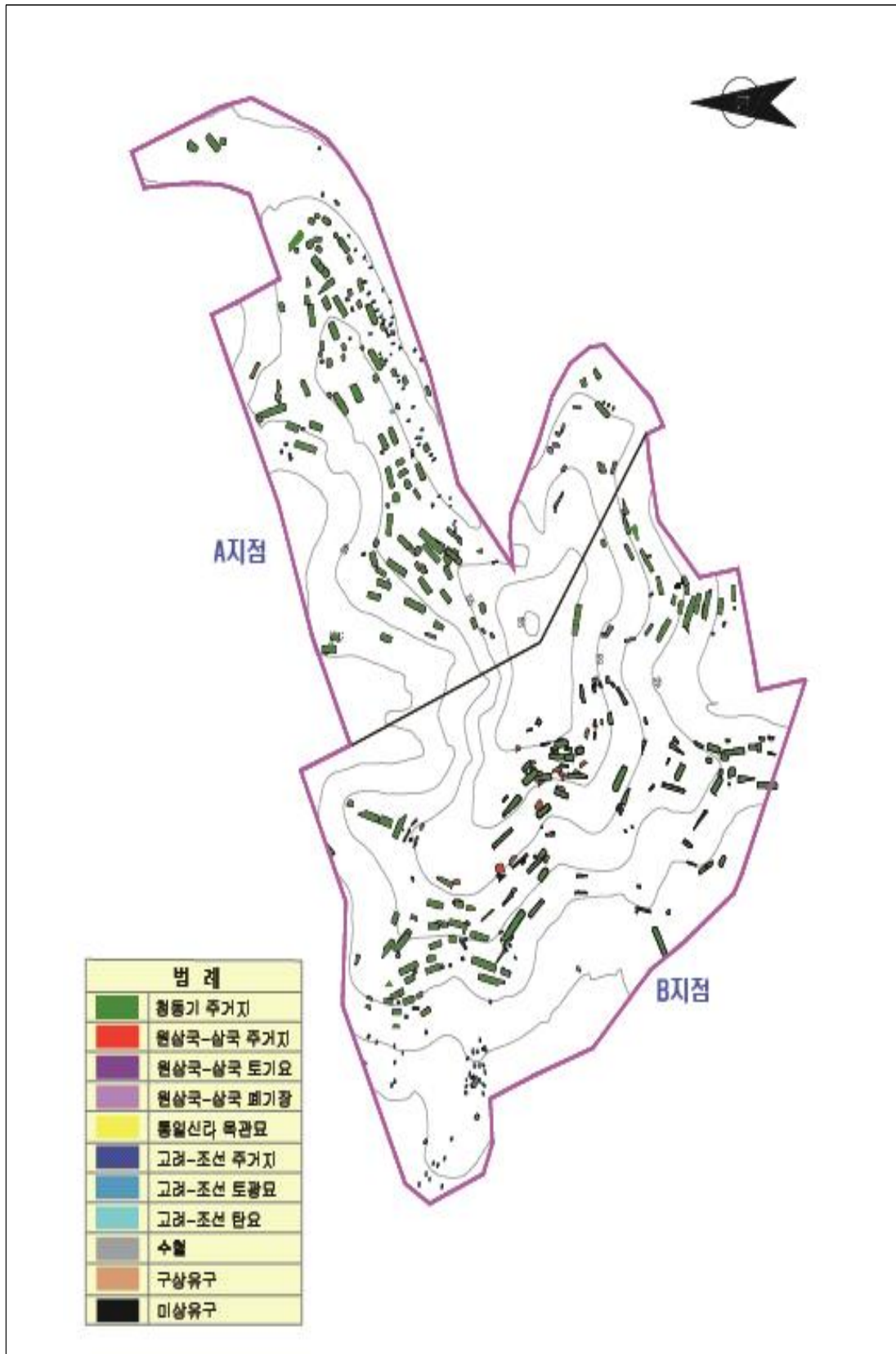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우선 토기류는 기종 면에서 심발형 토기가 대다수이고 마연토기와 대부토기, 환형파수부호 등도 소수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환형파수부호는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토기의 문양은 구순각목공렬문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구순각목문과 공렬문이 단독으로 시문된 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토기도 일부 확인된다.

다음으로 석기류는 농공구류와 무기류로 대별된다. 이 가운데 반월형석도, 삼각형석도, 석착, 합인석부, 방추차, 지석 등의 농공구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무기류는 석검, 석창, 석촉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성형석부, 환형석부, 관옥 등도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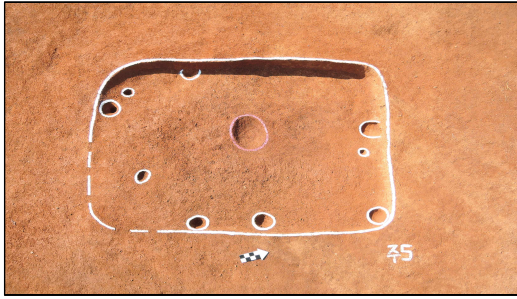
위와 같이 본 유적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확인된 최대의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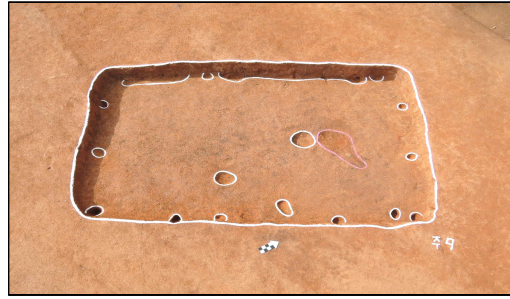
[사진 1] 발굴조사지역 원경(남서-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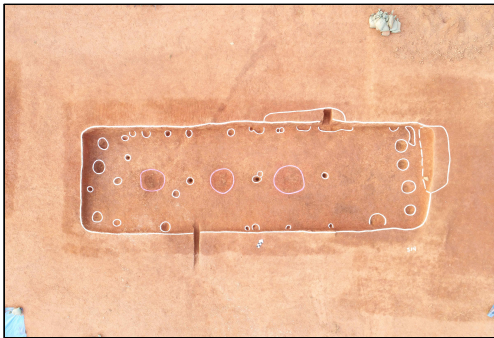
[도면 1] 발굴조사 현황도



[사진 2] A지점 6호 주거지 전경



[사진 3] A지점 9호 주거지 전경



[사진 4] A지점 12호 주거지 전경



[사진 5] A지점 20호 주거지 전경



[사진 6] A지점 23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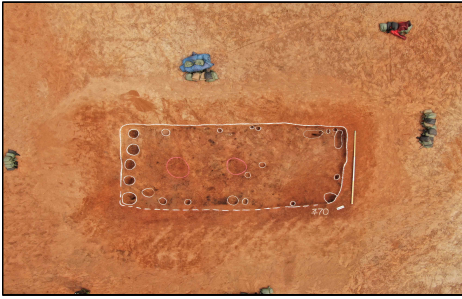
[사진 7] A지점 36호 주거지 전경



[사진 8] A지점 40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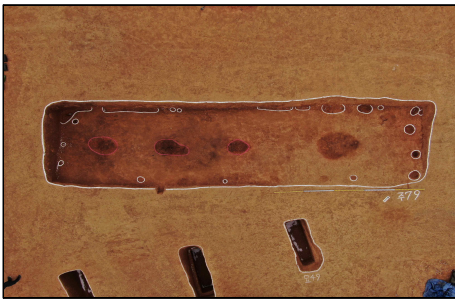
[사진 9] A지점 51호 주거지 전경



[사진 10] A지점 70호 주거지 전경



[사진 11] A지점 70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2] A지점 79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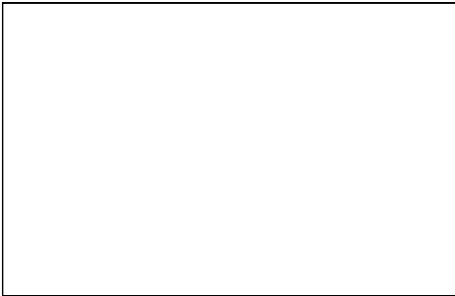
[사진 13] A지점 83·84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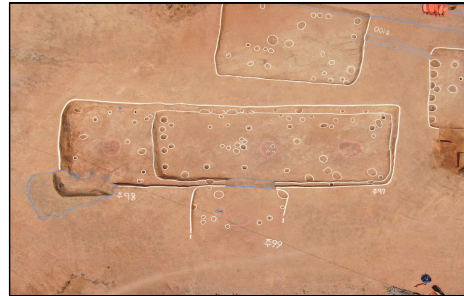
[사진 14] A지점 85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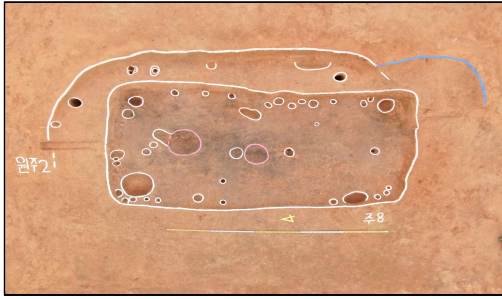
[사진 15] A지점 85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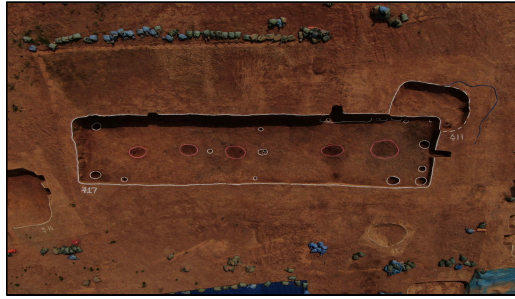
[사진 16] A지점 94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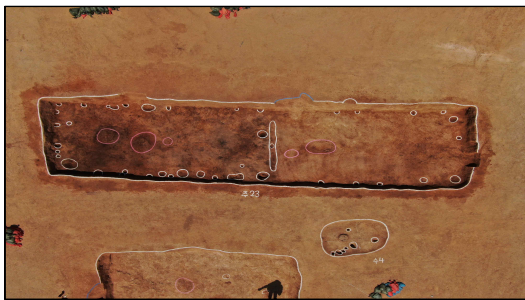
[사진 17] A지점 97·98호 주거지 전경



[사진 18] B지점 8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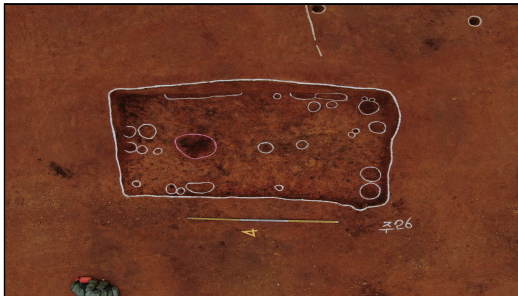
[사진 19] B지점 17호 주거지 전경



[사진 20] B지점 26호 주거지 전경



[사진 21] B지점 26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22] B지점 32호 주거지 전경



[사진 23] B지점 3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24] B지점 71호 주거지 전경



[사진 25] B지점 7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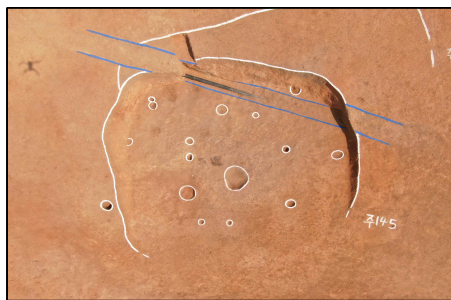
[사진 26] B지점 104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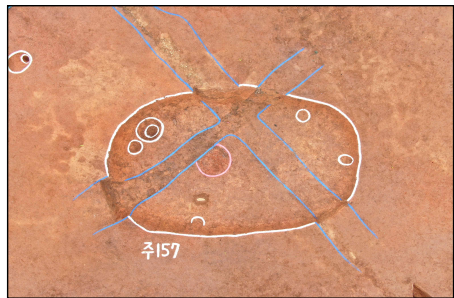
[사진 27] B지점 134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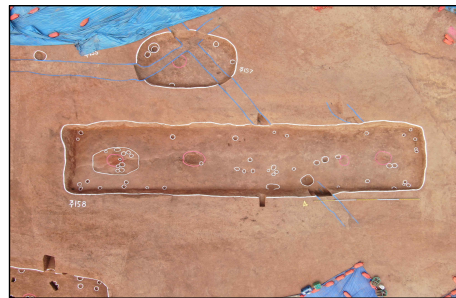
[사진 28] B지점 142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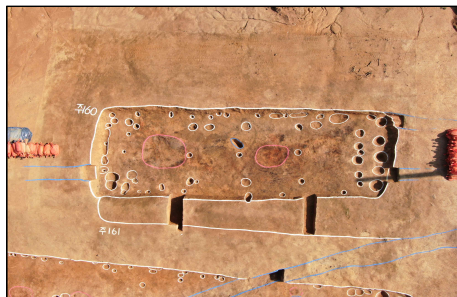
[사진 29] B지점 145호 주거지 전경



[사진 30] B지점 157호 주거지 전경



[사진 31] B지점 158호 주거지 전경



[사진 32] B지점 160호 주거지 전경



[사진 33] B지점 160호 주거지 출토유물

청주 월오동유적

강명석(대한문화재연구원)

I. 조사개요

청주 월오동유적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59-2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에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공사를 계획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청주 월오동 유물산포지는 2005년 청주시에서 청주 남부 노인복지마을 조성부지와 관련한 지표조사를 통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2009년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봉계서원 관련 홍살문 주초석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 및 문화재청 협의 결과, 해당 조사대상지역에 대해 사업 추진이 미실시되어 유적 보존이 결정되었다.

이 후 해당 유적 및 주변지역에 대해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사업시행 전 청주 월오동유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층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밝혀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밀발굴조사는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유적범위 5,996㎡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허가 제2020-0218호) 2020년 02월 25일부터 실조사일수 60일간 진행되었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25기와 방형적석 제의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II.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선도산(해발 547m)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월운천을 따라 깊은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계곡을 사이에 두고 좌우 동서쪽에 해발 500m 내외의 높은 산세가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은 낙가산(475m)과 선도산(547m)의 사이에 위치한 곡간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월운천이 인접하여 위치하며 북→남서쪽으로 흘러 무심천으로 합류한다. 곡간지를 따라서 산사면부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국민체육센터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산사면 말단부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구간 내에서는 지석묘군이 확인되었다.

1. 지석묘

지석묘는 총 25기가 확인되었다. 일부 상석이 잔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석묘는 곡간 산사태와 관련된 일시 퇴적층을 기준으로 중층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같은 등고선 상에서 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층위상 상층에서 4기, 하층에서 21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의 분포는 곡간 산사태와 관련된 일시 퇴적층을 기준으로 상·하층에 걸쳐 중층에 걸쳐서 노출되고 있다. 상석 혹은 매장시설이 확인된 지석묘들은 해발고도 127~133m 내에 분포한다.

상층 지석묘는 4기가 확인되는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3기는 열상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하층 지석묘는 21기가 확인되는데, 등고선 방향으로 조성된 최소 3열의 군집상이 드러나고 있다(1열: 4~19호 11기, 2열: 13~17호 6기/ 3열: 4기 이상).

동일 층위에 조성된 지석묘 중에서 7·8호와 15·16호와 같이 묘역시설이 중첩된 채 노출된 사례도 확인된다.

지석묘군이 조성된 곳은 산 사이에 형성된 협곡에 부채꼴 형태로 넓게 펼쳐진 선상지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퇴적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연적인 재난에도 불구하고 지석묘는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지석묘 제원표

유구	묘역시설			상석			매장시설				출토유물	비고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길이*너비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길이/너비/높이	종류	개석	장축 방향	규모(cm) 길이*너비		
1호				장방형	남-북	210*100*10	석관		남-북	150*45*30		
2호				?	남-북	175*70*15	?					
3호				장방형	남-북	240*100*20	석곽		남-북	170*40	마연토기	
4호				부정형	남-북	190*150*26	석곽		남-북	125*50*70		
5호	장방형	남북	650*410	장방형	남-북	180*110*25	석관	판석	남-북	114*36*42	석검, 석촉(2), 인골	개석(판석2중)
6호	장방형	남-북	710*460				?					
7호	장방형	남-북	610*500				석곽		남-북	155*60*50	마연토기	
8호	장방형	동-서	520*660*70	장방형	동-서	230*80*30	탁자		동-서	160*40*70	석촉, 마연토기	
9호	장방형	동-서	190*260	장방형	동-서	150*75*11	탁자		동-서	135*50*40		
10호	장방형	동-서	740*880				석관		남-북	165*60*50	마연토기, 석촉(14), 석검, 인골	
11호	장방형	남-북	370*350	장방형	남-북	190*100*20	석관	판석	남-북	90*30*30		
12호	방형계	남-북	620*530	원형		200*160*30	석관		남-북	110*44*38		
13호	방형?	남-북	310*300	장방형	동-서	140*65*50	석곽		동서	100*40*40		하부구조 미노출

14호	장방형	남북	750*620				석곽		남북	163*52*35	마연토기, 석축, 인골	시굴Tr 묘역부분 훼손
15호	장방형	남북	740*530				석곽					시굴 Tr 훼손
16호	장방형	남북	470*610				석곽		남북	160*60		16호 남쪽 선형유구 가능성
17호	장방형	남북	590*690				석곽		남북	170*70*31		
18호	말각 방형	남북	680*530				석관		남북	190*90*55		
19호	방형	동-서	740*620									
20호	방형	남북	680*630									
21호	방형?	남북										
22호	방형?	동서										
23호	방형?	남북										
24호	방형?	남북										
25호	방형?	남북										

1) 상석

상석은 10기에서만 잔존한 상태로 확인된다. 가공된 판석형과 가공되지 않은 괴석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대체로 2매나 3매로 깨어진 상태로 확인된다. 상석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거나 옆으로 살짝 이동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2m 내외, 너비 1.5m 내외로, 장축방향은 묘실의 장축방향과 동일하게 확인된다.

2) 묘역시설

묘역시설은 모든 지석묘에서 확인되고 있다. 묘역시설 평면형태는 (장)방형계와 원형계가 모두 확인되며 방형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구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묘역시설의 외곽을 판석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할석과 천석을 여러겹 쌓은 **적석형**과 기단을 갖추고 석재를 쌓아올린 **석축형**, 가장자리를 정연하게 구획하고 천석이나 납작한 돌을 세운 **구획형**이 확인되고 있다. 적석형과 구획형은 대체적으로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석축형은 대체로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태로 확인된다.

중첩된 유구를 통해 묘역시설의 변화를 상징하면, 등고선과 동일한 장축을 둔 묘역시설(석축형·구획형)에서 등고선과 직교하는 장축을 둔 묘역시설(적석형)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상층유구인 1, 2, 3호 지석묘가 모두 적석형에 가까운 묘역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변화양상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묘역시설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장축을 둔 8호가 가장 선축된 이후에, 7호와 9호가 동쪽과 서쪽에 각각 접해 묘역시설을 후축되었다. 더불어 7호 이전에 6호 묘역시설이 선축된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중첩된 묘역시설은 20호→16호→15호, 10호→22호 순으로 선후관계가 확인된다.

묘역시설 정리과정에서 석검, 석축,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3) 매장시설

매장시설은 묘역시설의 중앙에 위치한다. 판석을 네 벽에 세운 석관형과, 천석 혹은 활석을 여러 단으로 쌓아 구축한 석곽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석관형의 경우는 개석을 갖춘 경우가 많은데, 벽석의 재질과 동일한 판석재로 묘실을 덮는 경우가 확인되었고, 그 위로 상석을 올린 구조이다. 반면, 석곽형은 판석재 개석을 사용한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묘실의 벽석과 개석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석관형은 하층 첫 번째 열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범위 가장 하단에 해당하는 13~18호는 모두 석곽형 묘실을 구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매장시설에서 마치 횡구부 출입시설로 한쪽 단벽을 이용한 듯한 형태가 확인되는 점이다. 4호와 14호에서 그러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남단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벽을 선축하고 마지막으로 1매나 여러매의 석재를 가로방향으로 쌓아서 패쇄하며 남벽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장시설 가운데 5호와 10호, 14호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 10호와 14호에서 확인된 인골은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10호에 잔존하고 있는 인골은 매장된 모습 그대로 유물과 함께 확인되고 있다.

(1) 석관형

석관형은 8기가 확인되었다. 1호를 제외하면 모두 하층에 위치하며 대부분 동일한 열상에서 확인된다. 탁자식으로 구분되는 지석묘는 매장시설의 형태상 석관형으로 구분하였다.

묘실의 조성은 판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는데, 단벽은 판석 1매를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장벽은 1매 또는 여러 매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 5호와 11호의 경우 개석이 확인된다. 일부 묘실은 판석을 이용하여 묘실 위쪽을 덮고 있으며 그 위로 상석을 올린 구조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5·9·11호 지석묘는 ‘표’자를 세워놓은 듯한 형태로 장벽의 끝부분이 단벽과 맞닿지 않고 좀 더 바깥쪽으로 뻗어있어 단벽→장벽 순으로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단벽에 비해 장벽의 두께가 두껍게 확인된다. 시상은 판석 1매나 2~3매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묘실의 위치는 지상에 위치한다. 묘역시설과 묘실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묘실의 규모는 장축 기준 90~165cm로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관형 매장시설에서는 석검, 석촉, 흉도가 출토되었고 5·10호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다.

(2) 석곽형

석곽형은 7기가 확인되었다. 하층에서 주로 위치하며 석관형과 다르게 위치를 가리지 않고 유적 전체에서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벽석은 천석 혹은 할석을 여러 단으로 놓여서 쌓았고 시상은 얇은 판석 여러 매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단벽쪽에 입구를 만들어 횡구식의 형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4·7·14·17호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며 7호를 제외하면 모두 입구가 남동쪽을 향한다. 입구의 패쇄는 1~3매의 얇은 판석을 겹쳐서 입구를 막고 할석을 가로로 쌓아서 뒤채움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할석재 판석을 놓여서 쌓았으며 뒤쪽에는 석재를 채워 보강하였다. 또한 일부 묘실에서는 벽석의 안쪽면에 얇은 판석들이 덧대듯이 세워져 있는데 시신의 보호구 역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실의 위치는 지하에 위치하는데 묘실의 조성 시 굴광을 거쳐서 조성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묘실의 규모는 장축 기준 160~180cm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석관형 묘실의 규모가 다양하게 확인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석곽형 매장시설에서는 석축, 홍도가 출토되었고 14호에서는 인골이 확인되었다.

4) 출토유물 및 인골

유물은 총 7개 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석검 3점, 석촉 19점, 적색마연토기 5점이 출토되었다. 4호에서는 적색마연토기 1점, 5호에서는 석검 1점 석촉 2점, 7호에서는 적색마연토기 1점, 10호에서는 석검 1점, 석촉 14점, 적색마연토기 1점, 14호에서는 적색마연토기 1점,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출토양상은 토기 단독, 토기+석촉, 토기+석촉+석검, 석촉+석검의 구성으로 확인된다. 토기의 위치는 대체로 피장자의 발치쪽이며, 석검은 허리나 손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5·10·14호에서는 인골이 노출되었다. 10호에서 확인된 인골은 무너진 벽석에 의해 깨진 상태이긴 하지만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14호 출토 인골은 횡으로 확인되는 균열이 확인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골은 청주지역에서 확인된 바가 없지만 주변지역에서는 일부 확인되고 있다. 제천 황석리유적에서 4개체, 괴산 사창리 유적에서 2개체가 확인된다.

2. 방형 적석 제의시설

방형 적석 제의시설은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다.

규모는 가로, 세로 너비 약 1,200cm로 형태가 방형에 가깝다. 내부에는 판석과 할석 등 각종 석재가 밀집되어 확인된다. 유적의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며 내부정리과정에서 토기편과 석검편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유구의 성격은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방형 적석 제원표

규모	평면형태	매장시설	출토유물	비고
잔존 남북 1,200cm 잔존 동서 1,200cm	방형	-	홍도편, 석검편	내부 확인조사 필요

Ⅲ. 조사성과

이상으로 살펴본 청주 월오동유적의 주요 조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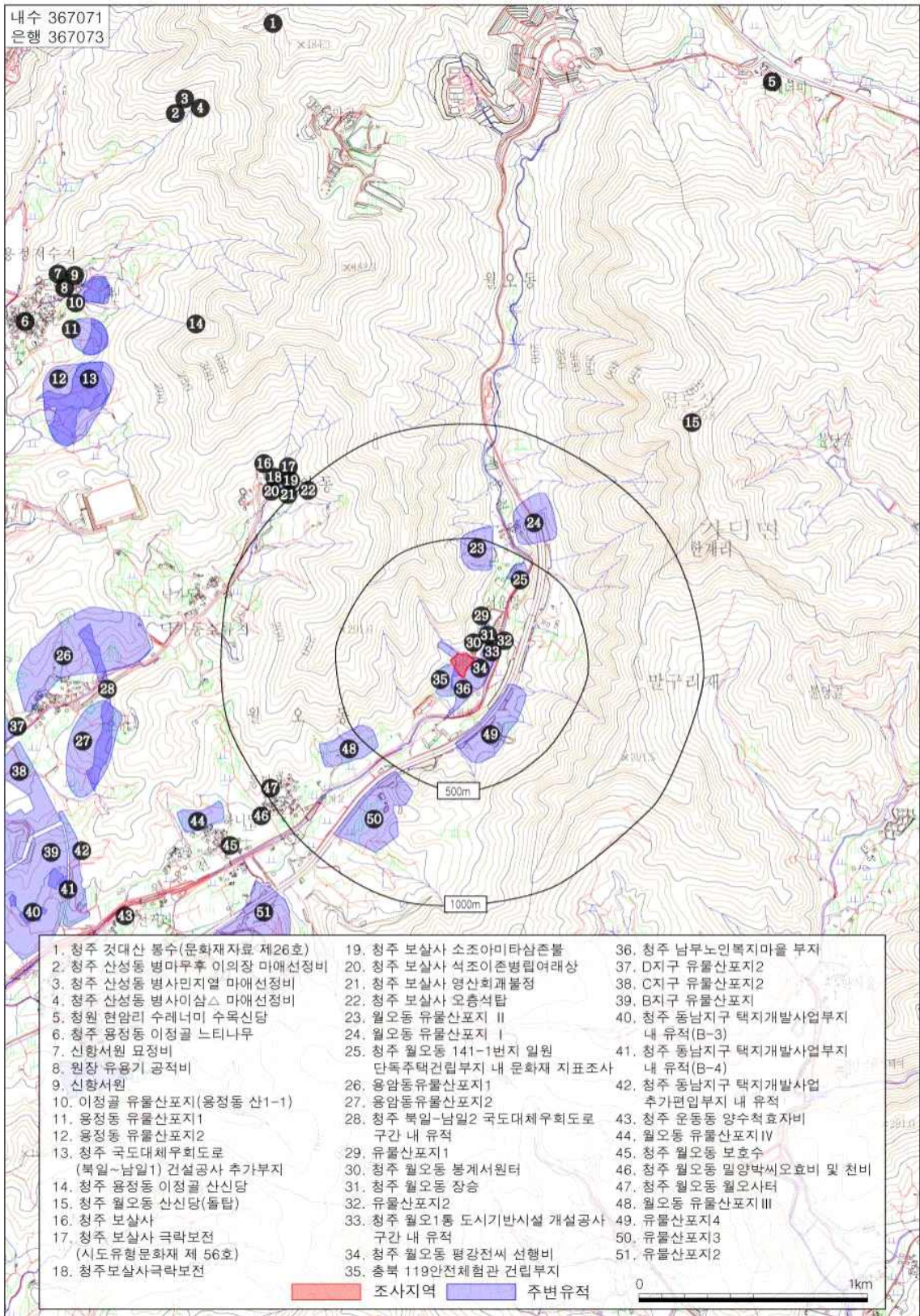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지석묘는 25기가 확인 되었다. 모두 개별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계이다. 석축형과 적석형, 구획형과 같은 종류가 확인되었는데, 선후관계는 등고선과 동일한 장축을 둔 묘역시설(석축형·구획형)에서 등고선과 직교하는 장축을 둔 묘역시설(적석형)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묘역시설을 갖춘 예는 1969년 사천 소월리유적에서 처음 조사된 이후로 영남지역, 호서지역, 호남 동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묘역시설을 갖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나타나는데, 묘역시설 정리과정에서 수습된 유절병식석검(有節柄式石劍)이 참고된다. 묘역시설을 갖춘 대표적 유적은 황해도 천진동·극성동·긴동지석묘, 강원도 천전리 지석묘, 충북 제천 황석리 지석묘, 충남 논산 신기리지석묘, 전북 진안 여의곡지석묘, 경남 창원 덕천리 1호 지석묘, 진동리 E군 1·2호, 합천 저포리 E지구 5·6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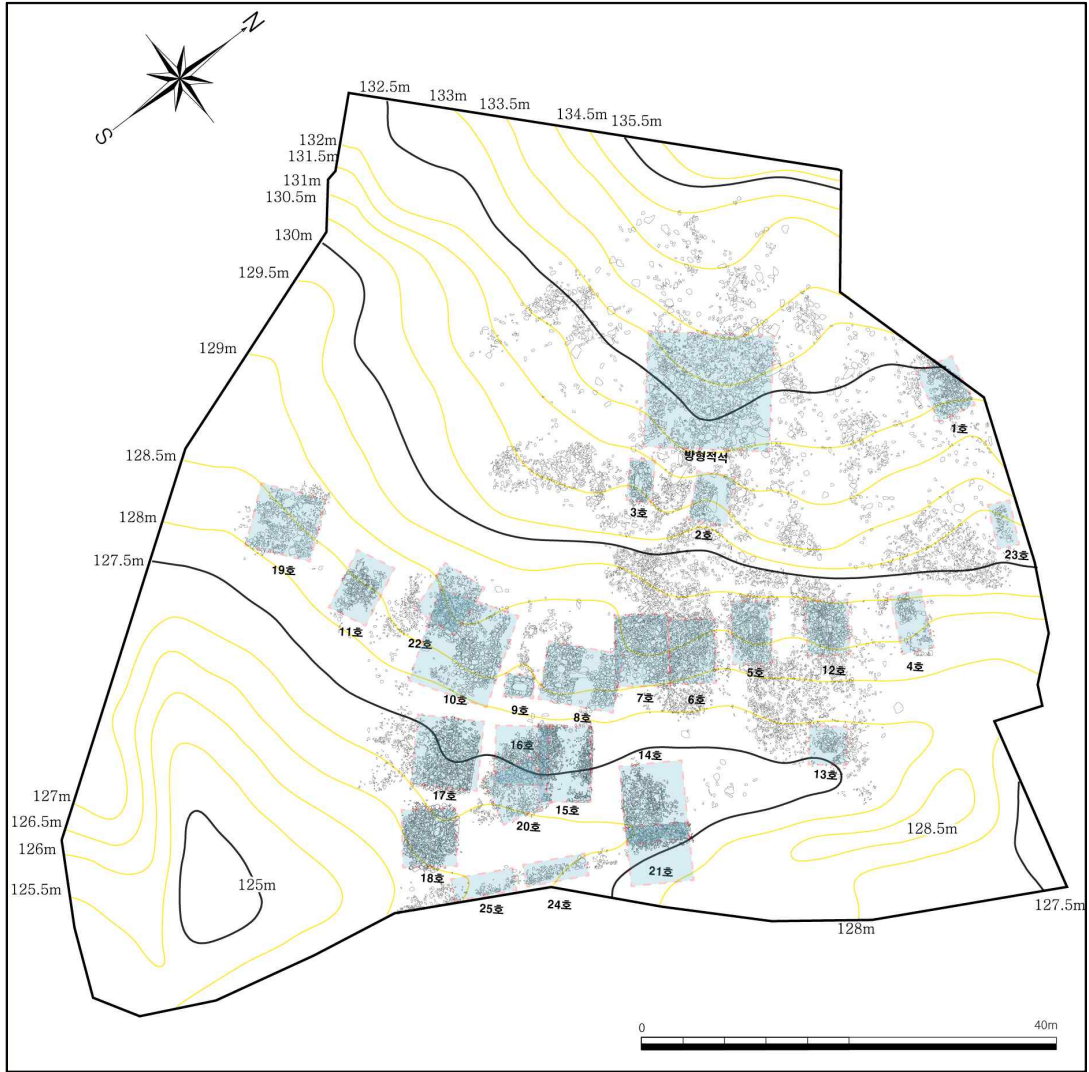
묘실은 지상에 판석으로 세워 만든 탁자식을 포함하는 석관형과 할석으로 구축된 석곽형 등이 확인되었다. 묘실의 종류에 따라 석관형은 지상식, 석곽형은 지하식 혹은 반지하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묘실의 형식에 따라서 축조 방법에서도 차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묘실에서는 횡구식의 형태로 단벽 한쪽에 입구를 둔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의 조사에서는 인식되지 않던 형태이다. 주로 석곽형 묘실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이러한 묘실의 형태 등은 한반도 북부의 묵방리, 침촌리 지석묘 등에서 조사된 형태와 유사하다.

묘실 내부에서는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축이 출토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묘실 내부에서 확인된 인골이다. 3개체의 인골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10호 지석묘 묘실에서 노출되어 확인된 인골은 최초 매장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확인되었다.

조사의 성과를 정리하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청동기시대 지식묘는 기존에 주변지역에서 조사 사례가 드문 것으로 현재까지 25기가 확인되었으며, 유적이 중층으로 조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지식묘가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식묘가 중층에 걸쳐서 일부는 중첩된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협곡에서 부채꼴로 펼쳐진 선상지 지형에 지식묘의 묘역 조성을 고수했던 당대 축조 세력의 매장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층으로 지식묘 유적이 드러난 예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중첩된 현상과 더불어 유구간의 선후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 진행 될 추가발굴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 (1:25,000)



도면 2. 청주 월오동유적 유구배치도



1호 지석묘 상석

3호 지석묘 상석



4호 지석묘 상석



9호 지석묘 상석



11호 지석묘 상석



12호 지석묘 상석

사진 1. 지석묘 상석 전경



적석형 묘역시설(7호 지석묘)



적석형 묘역시설(9호 지석묘)



석축형 묘역시설(18호 지석묘)



구획형 묘역시설(9호 지석묘)

사진 2. 지석묘 묘역시설 전경



5호 매장시설(석관형)



8호 매장시설(석관형)



9호 매장시설(석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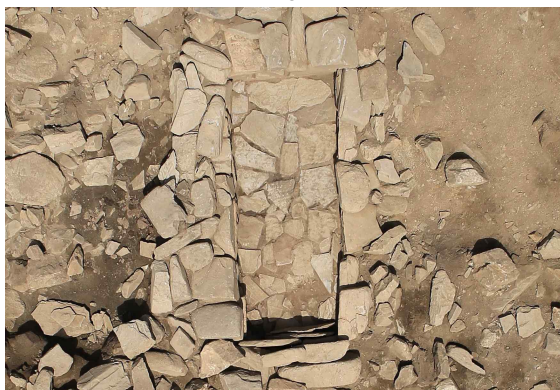
10호 매장시설(석관형)



4호 매장시설



7호 매장시설



14호 매장시설



17호 매장시설

사진 3. 매장시설 전경



4호 지석묘 출토유물



5호 지석묘 출토유물



7호 지석묘 출토유물



10호 지석묘 출토유물



10호 지석묘 출토유물



14호 지석묘 출토유물

사진 4. 출토유물 현황



10호 인골



14호 인골

사진 5. 인골 노출 상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 . 5공구 중인동유물산포지 C 유적 정밀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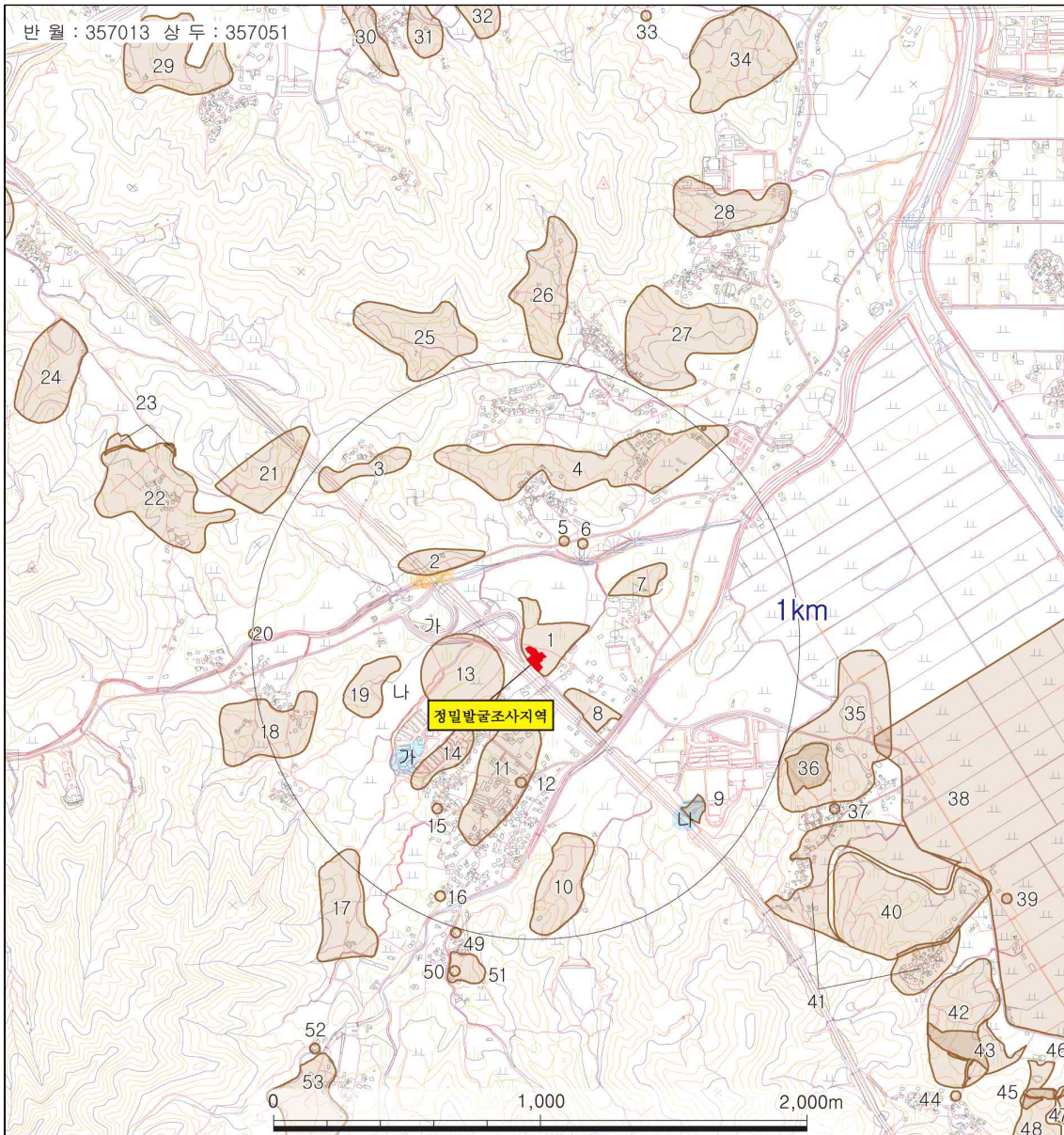
조수현·서창호 (한반도문화재연구원)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4 . 5공구 중인동유물산포지C
유적 정밀발굴조사
2. 허 가 번 호 : 제2019-0632호
3. 조 사 지 역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74번지 일원
4. 조 사 면 적 : 3,001㎡
5. 조 사 기 간 : 2019년 11월 8일~12월 15일(실조사일수 35일)
6. 조 사 기 관 : 재단법인 한반도문화재연구원
7. 조사의뢰자 : 한국도로공사

II. 조사경위 및 목적

- 1)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4,5공구) 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허가 제2019-0632호 : 2019년 5월 24일
- 2) 5공구 중인동유물산포지C, 중인동유물산포지D구간 조사실시
2019년 6월 18일~9월 3일(허가일수 117일 중 실조사일수 11일 소요)
- 3) 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분묘, 수혈, 구, 주혈, 집석유구 등의 유구확인
- 4) 발굴변경허가 : 2019년 9월 23일(실조사일수 32일)
- 5) 정밀발굴조사 착수 2019년 10월 8일
- 6) 중인동C구간 허가면적 경계부분에 석곽묘 3기 확인. 11월 1일 학술자문회의 개최
경계에서 확인된 유구를 조사하기 위해 추가부지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 필요
- 7) 추가부지 445㎡ 발굴변경허가가 득 (11월 12일) 실조사일수 3일
청동기시대 석곽묘 17기, 토광묘 2기, 주거지 4기, 수혈 2기 집석 2기 조사



 정밀발굴조사지역(중인동C유적)	 비지정문화재	 기초사지역
<p>가. 전주 중인동 하봉 유적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전주 중인동 하봉유적</p> <p>나. 전주 중인동 유적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전주 중인동 유적</p> <p>1. 중인동 유물산포지C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p> <p>2. 화정 유물산포지</p> <p>3. 서지 유물산포지</p> <p>4. 망월 유물산포지</p> <p>5. 한양조씨정려</p> <p>6. 망월 당산나무</p> <p>7. 중인동 유물산포지A</p> <p>8. 중인동 유물산포지D</p> <p>9. 중인동 유물산포지1 내 유적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전주 원산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p>	<p>10. 하봉 유물산포지</p> <p>11. 원중인 유물산포지</p> <p>12. 읍자박기열정려</p> <p>13. 원중인마을 유물산포지</p> <p>14. 원중인 고분군</p> <p>15. 원중인 지석묘</p> <p>16. 열녀어산송씨정려 열녀전주이씨정려</p> <p>17. 중인동 유물산포지B</p> <p>18. 전주 황소 유물산포지</p> <p>19. 황소 고분군</p> <p>20. 봉암 지석묘</p> <p>21. 서지마을 유물산포지2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22. 구덕 유물산포지</p> <p>23. 구덕 유물산포지</p> <p>24. 신덕마을 유물산포지2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25. 우육실 유물산포지</p> <p>26. 비아동 유물산포지A</p>	<p>27. 비아동 유물산포지B</p> <p>28. 정동 유물산포지</p> <p>29. 흥동 유물산포지</p> <p>30. 모과동 유물산포지A</p> <p>31. 모과동 유물산포지B</p> <p>32. 모과동 고분군</p> <p>33. 열녀이정순처 전주유씨정려</p> <p>34. 용산 유물산포지</p> <p>35. 학전 유물산포지</p> <p>36. 중인동 유물산포지2 내유적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3</p> <p>37. 열녀최상향처 김해김씨정려</p> <p>38. 원당 유물산포지C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39. 원당 지석묘</p> <p>40. 원당 유물산포지A</p> <p>41. 원당 유물산포지A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42. 원당 유물산포지B</p>
<p>43. 원당 유물산포지B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44. 추동 당산나무</p> <p>45. 추동 유물산포지/원당동 고분군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46. 원당리 산성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p> <p>47. 원당리 산성</p> <p>48. 추동 유물산포지</p> <p>49. 효자고재송정려각</p> <p>50. 열녀이준규처 전주강씨정려</p> <p>51. 신곡 유물산포지</p> <p>52. 청하 서원</p> <p>53. 도계 유물산포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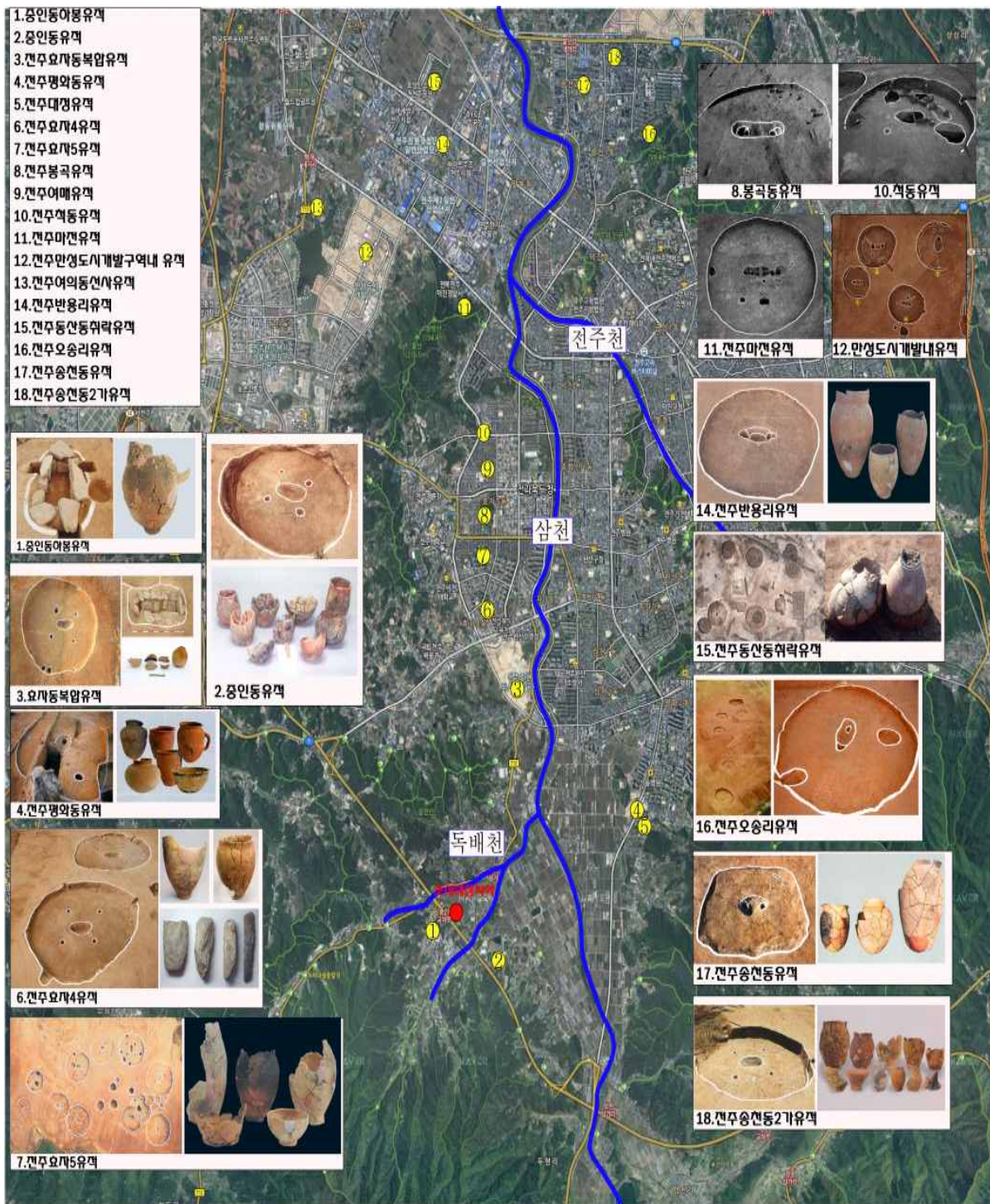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중인동 유물산포지 C 유적 위치 및 주변 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위치도(1/5,000)



도면 3. 5공구 중인동 유물산포지 C 조사현황도(1/1,000)



도면 4. 조사지역 주변 청동기시대 조사현황

Ⅲ. 조사내용



사진 1. 조사지역 원경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조사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77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842㎡이다

조사지역은 모악산(795.2m)에서 북쪽으로 뺀 가지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선상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완주군 상관면에서 익산시 여산면을 연결하는 호남로가 개설되어 있고, 북쪽에는 독배천이 서-동으로 흘러 삼천에 합류하여, 넓은 평야지를 형성하고 있다. 독배천 및 삼천 주변의 평야지 일원은 논,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고, 조사구간 역시 최근까지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었다가 벌목 등이 완료된 뒤 공지로 남아있었다.

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수혈,분묘가 다수 확인된바 있다

1. 층위

1층 : 표토층(현대)	
2~4층 : 현대경작층	
5층 : 회갈색 사토 (청동기시대 문화층)	
6층 : 자연범람층	
7층 : 자연범람층	
8~9층 : 모래, 자갈층	
10층 : 모래자갈층 (하상퇴적층)	

1층~4층은 현대 경작층으로 두께 50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현대경작관련 기경흔 및 폐기물 등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5층 약 20cm 정도로 얇게 남아있으며, 내부에는 소량의 목탄과 무문 토기편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분묘가 조성된 층이다. 6층~7층은 경도가 강하며, 두께 30~40cm 정도로 확인되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모두 IV층 상면을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다. V층은 조립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악산 북쪽의 가지능선 사이에서 독배천이 삼천주변의 평야지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선상지상 퇴적양상을 보인다. 독배천은 전주시 완산구 용봉동, 중인동에 위치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상경사는 중·상류부는 1/26~1/64로 급경사를, 하류부는 1/100~1/236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즉 중·상류부에서 평지와 만나는 기점에 선상지가 형성되며, 표토 1m 아래에 조립질의 모래가 퇴적된 것은 선상지 지형 중 선상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⁴⁾ 한편, 계단식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772-1번지 일원에서는 경작층(I 층) 하부에 기반층(IV층) 및 하상퇴적층(V층)이

4) 선상지는 선정, 선양, 선단으로 구성되며, 용수확보가 유리한 선양, 선단부에 취락유적이 입지하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유적은 대구 동천동 유적, 대구 시지동 유적, 경주 황성동 유적, 울산 호계동 유적, 울산 천상리 유적 등이 있다.

최현섭, 1997, 『한반도 중·남부 지역 선사취락의 입지유형』,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관찰되며, 층 상면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현 지표 50cm 내외에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경작 및 경지 정리과정에서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토층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1~4층은 경작과 관련된 층이다. 5층은 무문토기가 및 목탄이 포함되고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문화층이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조사 구간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현대경작으로 인해 층 상부는 훼손되어 두께 10~20m 정도로 얇게 남아 있다. 6~7층은 하천의 범람으로 이루어진 범람층이고 8~9층은 조립질의 모래와 자갈고 구성된 하상퇴적층이다.



도면 5. 조사지역 지질도 세부

2.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4기가 조사되었다. 1호의 경우 중앙에 타원형 수혈 없이 수혈식 노지가 확인되고 그 외는 중앙 타원형수혈 내 양쪽에 중심주공이 배치된 형태이다. 형태는 1호~3호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지만 4호는 방형을 이루고 있다. 규모는 4~5m로 잔존깊이는 약 30cm이다. 내부에서는 무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2호에서는 석착이 출토되고, 4호에서는 지석이 출토되었다.

2호와 3호의 경우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로 볼 수 있으며 4호의 경우 휴암리형으로

전주지역에서는 송천동 2가 11호 주거지, 송천동(B지구)주거지 외 조사사례가 많지 않다



사진 3. 주거지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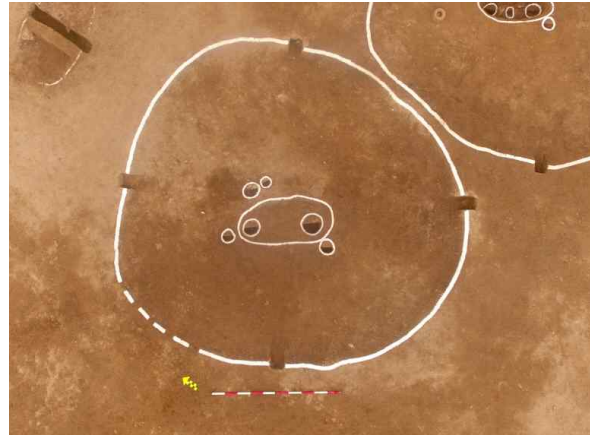


사진 4. 주거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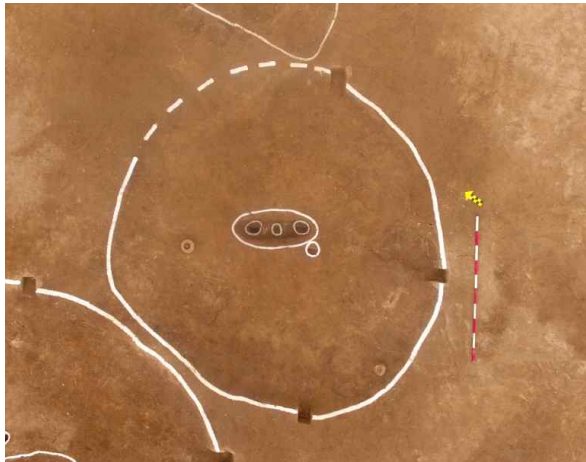


사진 5. 주거지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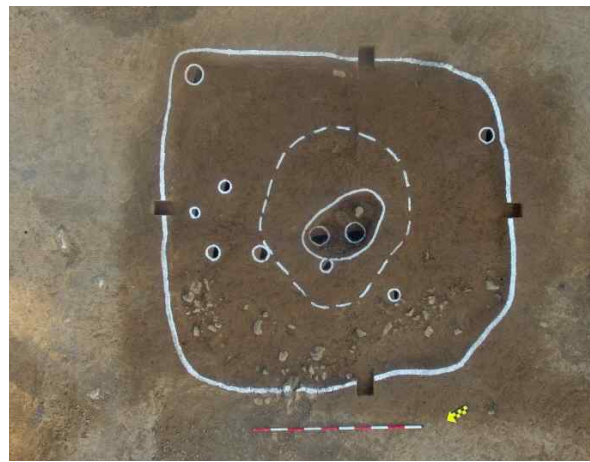


사진 6. 주거지 4호

3. 분묘

청동기시대 묘는 모두 19기가 조사되었다. 할석을 방형또는 장방형으로 조성한 묘역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벽석을 판석으로 수적하거나 할석으로 평적한 경우가 확인된다.

묘 내부에서는 마제석검이 대부분 단벽과 장벽의 모서리쪽에 세워져 출토되었으며 일부 시상 또는 바닥의 중앙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3호의 경우 바닥에 무문토기를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는데 익산 어량리 가지구 1호에서도 확인된다.

묘역이 남아 있는 경우는 3~7차에 걸쳐 상부 부석 및 개석을 축조한 양상을 보인다. 전주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분묘가 확인되는 유적은 전주 여의동유적, 송천동 2가유적, 마전Ⅲ유적, 동산동유적, 효자4지구, 효천지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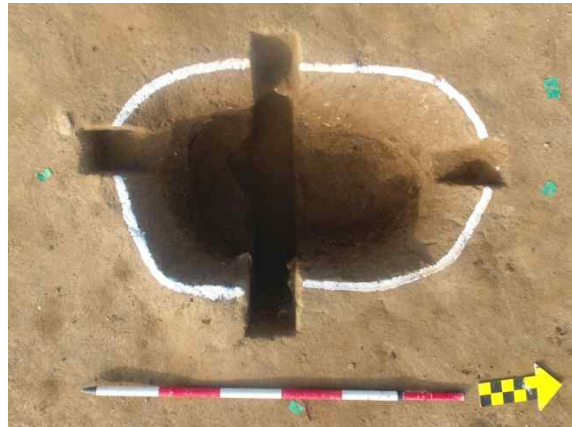


사진 7. 분묘 1호 석개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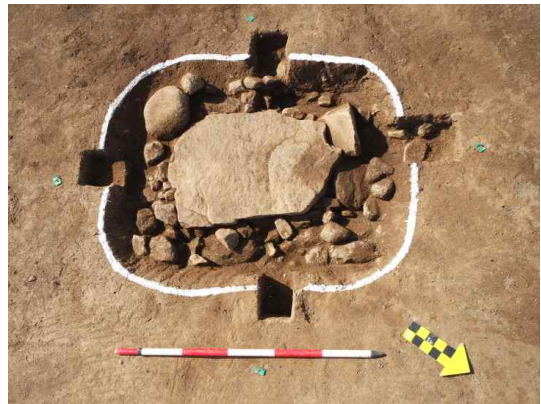


사진 8. 분묘 4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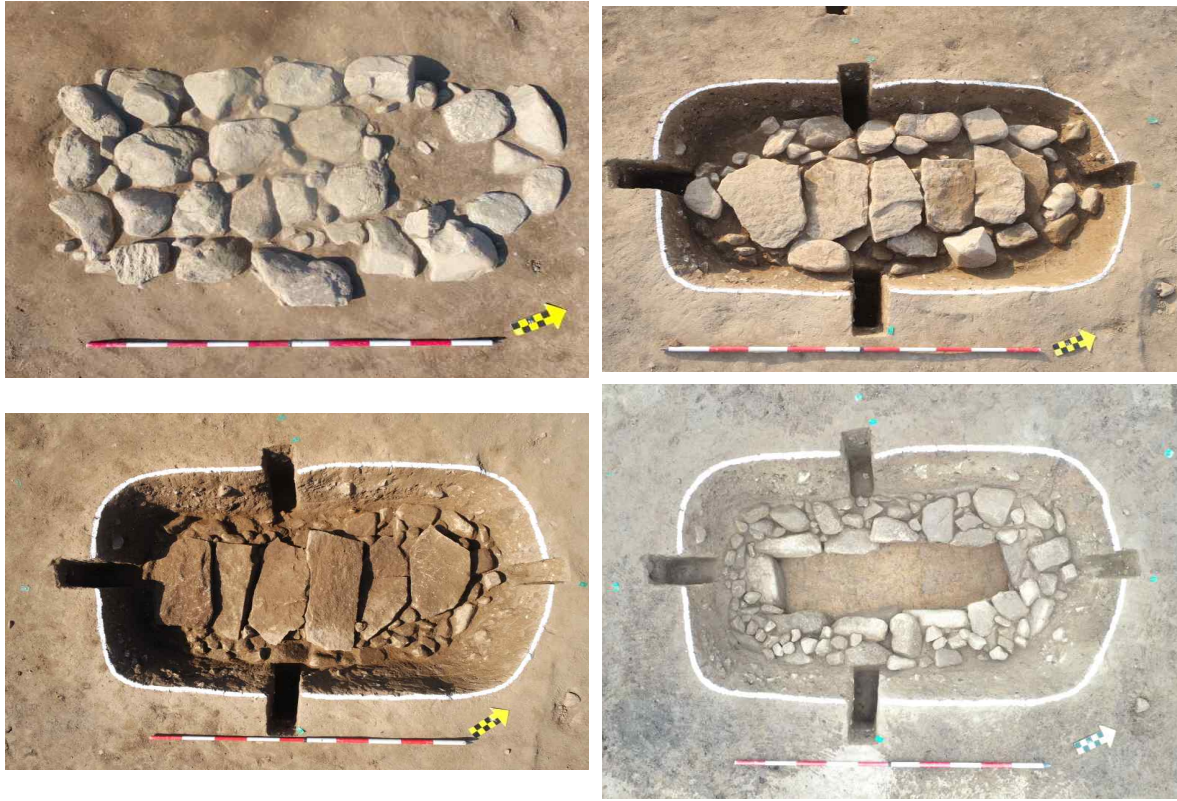


사진 9. 분묘 2호 석곽묘



사진 10. 분묘 3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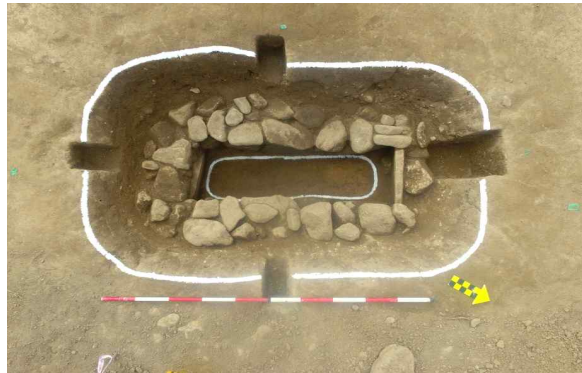


사진 11. 분묘 5호 석곽묘



사진 12. 분묘 7호 석관묘



사진 13. 분묘 6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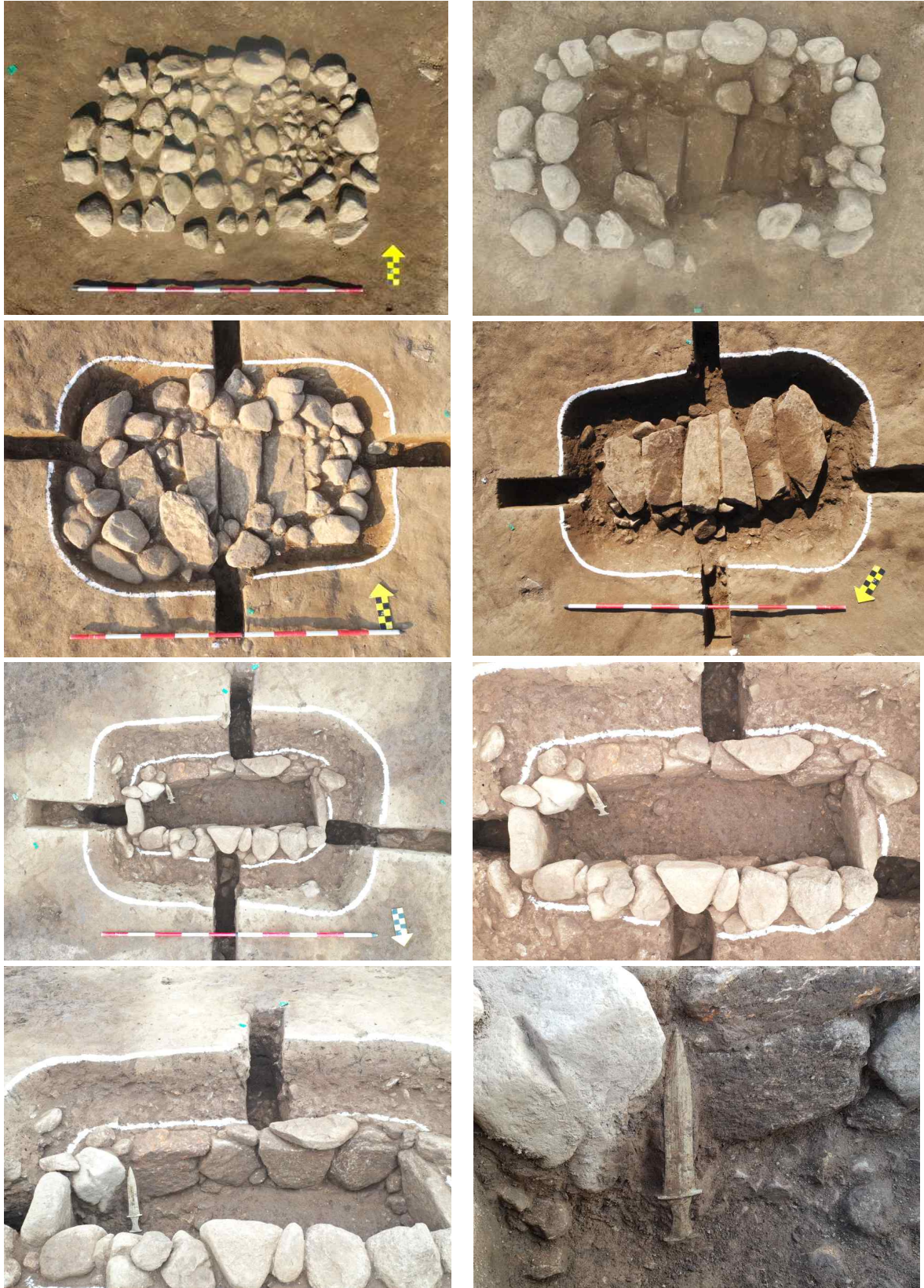


사진 14. 분묘 10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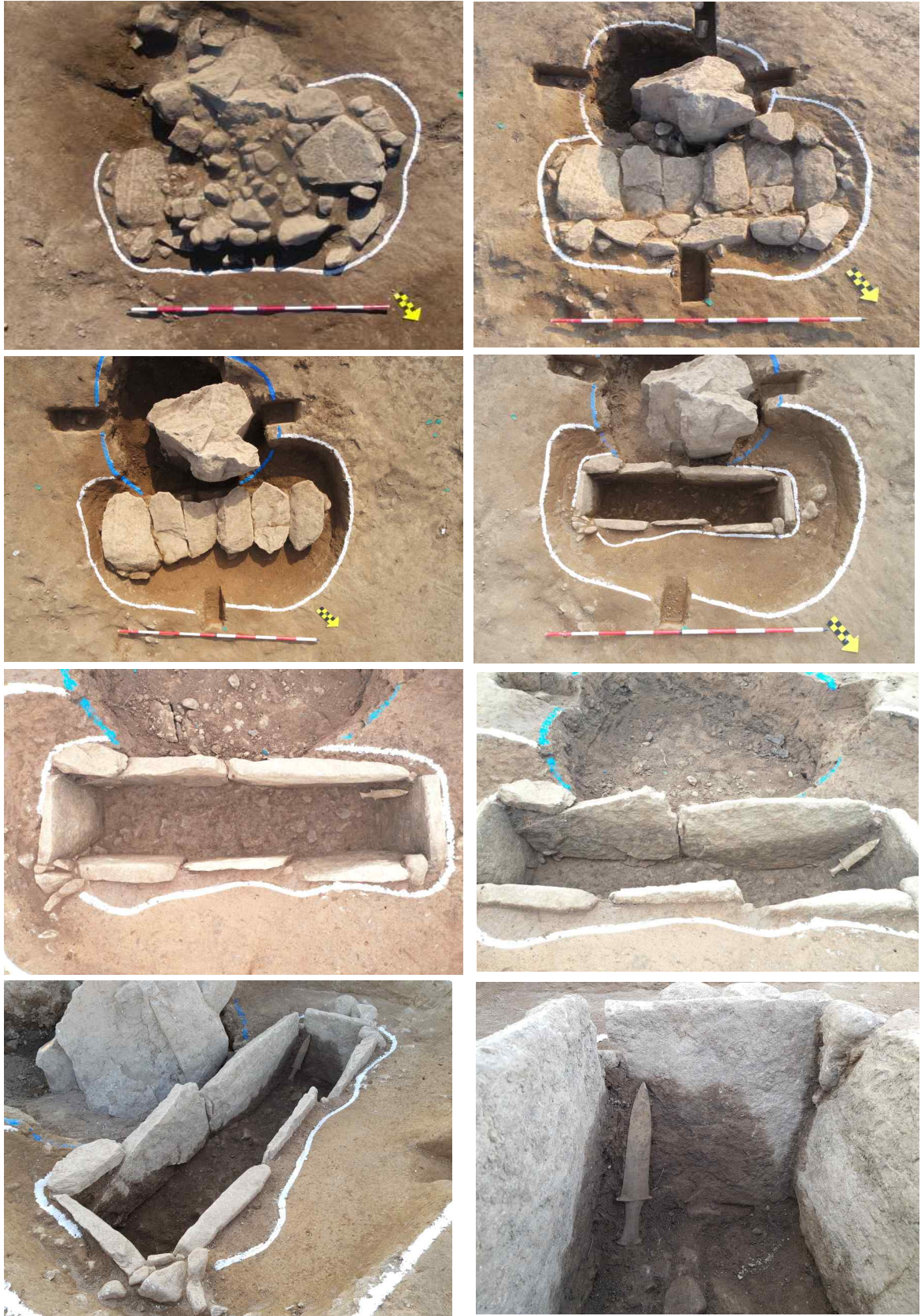


사진 15. 분묘 11호 석관묘



사진 16. 분묘 12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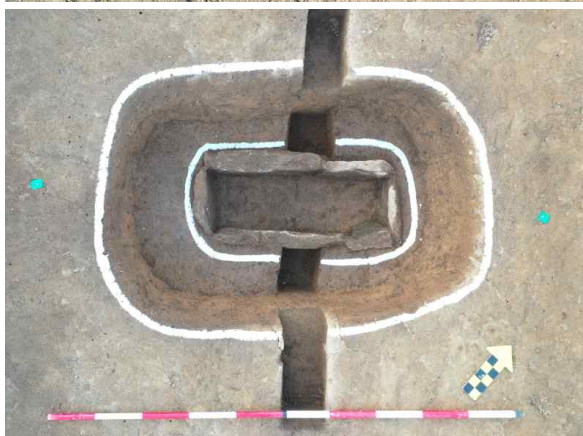


사진 17. 분묘 14호 석관묘



사진 18. 분묘 17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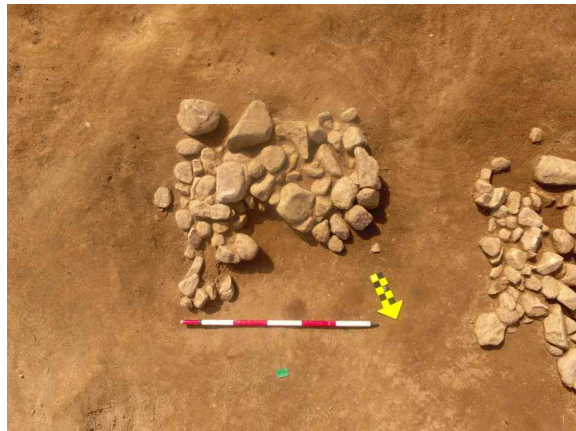


사진 19. 집석유구 1호

사진 20. 집석유구 2호



사진 21. 수혈 1호

표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제원표

주거지	평면형태	특징	길이	너비	깊이	출토유물
1호	원형	중앙 노지, 주혈	592	536	23	무문토기편
2호	원형	중앙수혈 내외주혈	506	540	30	석착
3호	원형	중앙수혈 내외주혈	484	414	22	무문토기편
4호	방형	중앙수혈내외주혈	414	384	12	무문토기편

표 2. 청동기시대 토광묘 제원표

토광묘	평면형태	특징	길이	너비	깊이	출토유물
1호	장방형	이단굴광	196	120	36	무문토기
2호	세장방형	-	168	72	23	-

표 3. 청동기시대 분묘 석관묘 제원표

석관묘	특징	길이(석관)	너비(석관)	깊이	출토유물
1호	석개	124	74	40	-
2호	묘역석, 개석	270(140)	148(42)	42	-
3호	석관, 시상무문토기	226(130)	96(30)	59	마제석검, 무문토기
4호	개석, 벽석 와수적	138(64)	109(25)	43	-
5호	묘역석, 개석, 석곽묘 추정 통나무관	231(120)	139(35)	76	-
6호	묘역석, 개석(3차), 벽석 판석 와수적	251(140)	145(41)	84	마제석검
7호	석축형 석관묘	237(176)	130(50)	52	마제석검
8호	석개	116	76	32	-
9호	석축형 석관묘, 시상석	245(155)	169(48)	26	마제석검
10호	묘역석, 개석	222(144)	145(38)	44	마제석검
11호	상부부석, 개석, 벽석 판석 와수적	250(157)	140(45)	37	마제석검
12호	석축형, 개석	242(156)	141(38)	49	마제석검
13호	묘역석, 시상판석	184	136	25	-
14호	묘역석, 개석, 벽석판석재 와수적	166(84)	119(31)	67	-
15호	석관묘	233(209)	126(101)	20	-
16호	바닥시상석	231(205)	150(135)	12	-
17호	개석,벽석 판석 와수적	240(170)	101(42)	54	-

IV. 조사결과

1. 금번 정밀발굴조사대상지역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4,5공구) 내 유적 중 제5공구 중인동유물산포지 C구역이다

조사지역은 모악산(795.2m)에서 북쪽으로 뻗은 가지능선 말단부에 형성된 선상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과수원 등으로 활용되었다가 벌목 등이 완료된 뒤 공지로 남아 있었다.

2. 이번 조사에서 중인동유물산포지C에서는 청동기시대 분묘 19기(토광묘 2기포함), 주거지 4기, 수혈 2기 집석유구 2기 등 모두 27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3. 주거지는 송국리형주거지이고 내부에서는 타원형 수혈과 무문토기, 석착등이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와 휴암리형 주거지로 전주지역에서는 송천동 2가 11호 주거지, 송천동(B지구)주거지 외 조사사례가 많지 않다.

분묘는 석관묘와 석곽묘, 석개토광묘, 토광묘 등이 확인되며, 내부에서는 유병식 석검과 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반대로 추정할 수 있다.

묘역이 남아 있는 경우는 3~7차에 걸쳐 상부 부석 및 개석을 축조한 양상을 보인다. 전주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분묘가 확인되는 유적은 전주 여의동유적, 송천동 2가유적, 마전Ⅲ유적, 동산동유적, 효자4지구, 효천지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4. 전주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은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취락유적으로 일부 주거지와 함께 공존하는 분묘는 대부분 토광묘와 석개토광묘가 주를 이루며 그 수도 많지 않았다. 이번 중인동 유물산포지C 유적에서는 석개토광묘를 비롯하여 석관묘와 묘역을 이루는 석관묘 등 다양한 축조양상을 보여주는 청동기시대 분묘가 다수 확인되어 이 일대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 한들유적

황철현(한화문화연구원)

I. 유적개요

함양 한들유적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62-1번지 일원으로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함양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부지에 해당하며, 남-북으로 약 346m, 너비 40~50m로 총 면적 14,570㎡에 이른다. 북동-남서방향의 한들로와 연접한 동쪽 충적지의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함양읍의 시가지로서 상가와 주택 등이 조성되어 있고, 동쪽은 위천(渭川)이 넓게 활상으로 휘감아 돌면서 주변에 충적지 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다. 함양 한들로 불리는 평야지대는 완만한 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적 전체적으로 길게 뻗은 퇴적면이 북고남저 상의 경사면을 유지하고, 마을이 들어서 있는 서쪽에서 평야지대인 동쪽으로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위치에 따라 1m이내의 낮은 단차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위천의 오랜기간에 걸친 활발한 하상활동으로 인하여 꾸준하게 하천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최근까지 경지정리과정을 거치면서 비옥한 논농사와 밭농사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고려시대 도기편이 채집되어 고려시대 생활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함양 용평리 유물산포지²로 명명된 후⁵⁾ 입회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형 수혈, 구 등이 조사되어 7,035㎡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조사 중 남쪽경계 외곽으로 유구의 윤곽선이 연장되는 것이 추가 확인되었고, 북쪽으로는 연장 시굴조사를 거쳐 면적이 확대되어 총 14,570㎡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생활유적으로서 청동기시대 주거지⁶⁾ 16동, 청동기시대 고상건물지 1동, 청동기시대 야외노지 1기, 청동기시대 수혈 11기, 삼한시대 수혈 1기, 고려시대 주거지 및 수혈 6기, 고려대대 인공수구 등이 조사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함양 한들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주거지의 내부 구조와 출토유물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선배제현의 교시를 받고자 한다.

II. 함양 한들유적 청동기시대 초대형 장방형주거지

1. 유구분석

이제까지 함양읍 내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정밀발굴조사되어 보고된 사례는 처음이

5) (재)경상문화재연구원, 2015, 「함양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 금번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라고 분류한 것들은 기존 청동기학회 및 관련 전문가들의 분류에 의하면, 무문토기시대 조기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편의상 무문토기시대, 청동기시대로 시기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동기시대라고 부르기로 한다. 차후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각 주거지마다 시기 구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기로 하겠다.

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이곳 함양지역에 정촌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남강 상류역인 위천(渭川) 주변에서 청동기시대에 초대형 장방형주거지를 축조하면서 대규모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던 일부의 흔적을 조사하고 학계에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조사의 의의가 있다.

조사된 함양 한들유적의 주거지는 평면형태⁷⁾, 규모, 노지, 기둥구조 등의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 하였다. 조사과정 주거지 내부에서 안정된 토층상에서 양호하게 잔존하는 목탄은 탄소연대측정을 의뢰하여 축조연대의 검토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먼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1~1.3:1), 장방형(1.3~2.7:1), 세장방형(2.7:1~)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범위 외곽으로 연장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주거지는 제외하고, 노지 위치 등으로 크기의 추정이 가능한 주거지는 분류에 포함시켰다. 조사한 주거지 16동은 방형주거지 5동(1호·5호·7호·12호·14호), 장방형주거지 7동(2호·3호·8호·9호·10호·11호·13호), 세장방형주거지 2동(15호·16호)으로 분류되며, 조사경계외부로 연장되는 4호·6호 주거지는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지만 두 직각모서리가 확인되는 세벽면이 조사되어 방형주거지로 분류하였다.

규모로 구분해 보면 3개의 군집화 현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군은 길이 1,760~2,022cm, 너비 860~906cm, 상면적이 154~183.2m² 정도로 모두 4동(2호·3호·8호·9호)이 속하며 가장 큰 면적이다. 이들은 남강유역권에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에 속하는 초대형장방형주거지로 분류된 것들과 비교해 보아도 그 규모에서 상위에 속할 정도의 규모이다. ‘나’군은 길이 674~976cm, 너비 356~670cm, 상면적이 34.2~56.9m² 정도로 7동(1호·5호·11호·13호·14호·15호·16호)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소형에 속하는 ‘다’군은 길이 304~410cm, 너비 240~288cm, 상면적 7.2~11.1m² 정도의 주거지로 3동(7호·10호·12호)이 해당된다.

노지는 석재의 사용 유무에 따라 석상위석식(石床圍石式), 토광위석식(土壙圍石式), 토광식(土壙式, 또는 무시설) 등으로 구분하였고, 평면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금번 조사된 주거지 내부에는 대부분 바닥에 판석을 깔고 그 주변에 돌을 둘러 설치한 석상위석식 노지가 구비되어 있는데 9동(1호·2호·3호·6호·7호·8호·9호·11호·13호)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3호·8호 주거지에서 2개, 9호 주거지에서 3개 등 2개 이상의 노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2호 주거지의 노지는 다른 노지에 비해 2배 정도의 길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지의 내부공간이 넓고 큰 공간을 감안한 노지의 설치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음, 바닥면 일부를 굴광한 후 내부는 그대로 두고 굴광벽에 벽석을 둘러 설치한 토광위석식 노지는 5호·14호 주거지에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16호 주거지는 주거지 중앙부에 피열흔이 잔존하여 노지의 성격을 가진 시설을 사용한 토광식으로 이해된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인 9호·1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방형 또는 말각방형이다. 2호 주거지의 석상위석식 노지는 ‘日’자의 형태로 말각방형이다.

다음으로는 기둥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석과 주공의 여부는 주거지의 규모 및

7) 금번 조사현장을 기준으로 주거지의 장단비 1.0~1.3 미만을 방형, 1.3~2.7 미만을 장방형, 2.7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와 더불어 내부 공간분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속성이다. 본 유적에서 초석을 설치한 주거지는 장축 방향을 따라 2열 배치된 형태로 축조되었다. 모두 6동(2호·3호·4호·8호·9호·12호)이 조사되었고, 초석을 벽 중앙에 설치한 형태는 1동(11호)이 조사되었다.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기둥시설을 세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둥을 설치한 내부 공간분할과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거지 조성시기의 절대편년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주거지 내부에 탄화목재가 양호하게 잔존한 주거지 4동(3호·8호·9호·14호)은 절대연대 측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AMS를 의뢰하였다. 측정 결과, 3호 주거지는 B.P.3010±40, 8호 주거지는 B.P. 2950±40, 9호

주거지는 1차 사용면 B.P.2950±40, 2차 B.P.2940±40, 3차 B.P.2870±40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14호 주거지는 B.P.2860±40의 절대연대가 도출되어 무문토기시대 초기 후반~청동기시대 전기 전반 정도에 조성된 주거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 함양 한들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속성표

출토유구	크기(cm)			면적(m ²)			평면형태			기구조	위석식노지			탄소연대
	길이	너비	깊이	15이하	15~100	100이상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석상	토광	무시설	
3호	2,030	934	35			●		●		초석열 ⁸⁾	●(2)			3010±40
8호	(1,660)	970	15			●		●		초석열	●(2)			2950±40
9호(3차)	2,022	906	21			●		●		초석열	●(3)			3차)2870±40 2차)2940±40 1차)2950±40
14호	674	608	16		●		●					●(2)		2860±40
6호	(204)	226	18	●			-				●			
7호	386	288	24	●			●				●			
10호	410	242	14	●				●					●	
12호	304	240	24	●			●			초석			●	
1호	749	573	13		●		●				●			
4호	1,115	(320)	23		●		-			초석열			●	
5호	846	672	34		●		●					●		
11호	702	488	8		●			●		초석열	●			
13호	720	542	14		●			●			●			
15호	1,220	356	24		●				●				●	
16호	(1,200)	370	16		●				●				● (추정)	
2호	1,806	880	40			●		●		초석열	●			
합계				4	8	4	5	7	2		9	2	5	

2. 유물분석

함양 한들유적의 주거지에서 다종다양한 토기 및 석기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경우 파손 상태가 심하여 복원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기는 돌대문계, 이 중구연계, 적색마연, 두형, 직구호 등의 용기들과 함께 방추차, 어망추 등의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특이할 점은 공열문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석기는 석도, 석검, 석

8) 함양 한들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내부에 초석열과 초석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초석열은 주거지 중앙에 2열로 배치된 것을 말하며, 12호 주거지는 초석으로 사용된 석재가 각 벽 중앙부에서 약간 안쪽으로 치우친 곳에 1매씩 설치된 형태이다.



사진 1.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조사중 전경(남동→북서)



사진 2.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남동→북서)



사진 3.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남서→북동)



사진 4.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3차 생활면 조사 중 전경(북동→남서)

부, 석촉, 방추차, 숫돌 등 농공구류가 출토되었다. 그 외, 옥제·토제 장신구류 등도 출토되어 남강수계의 상류역인 위천을 중심으로 한 함양지역의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지만 구연에 돌대문계 장식이 있는 토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함양 한들유적에서 출토된 일주문(3호·5호·9호 3차·9호 2차생활면)과 절상돌대문토기류(3호·9호 3차생활면)가 돌대문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 돌대에 대부분 각목문이 시문된 형식으로 출토되었고, 절상돌대문 중 파수부형태가 부착된 것(3호)과 거치문이 장식된 것(5호), 구연 하부에 돌기가 부착된 형태(뉴상파수, 2호·3호·7호)의 돌대문토기도 출토되는 등 다양한 형식의 돌대문토기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순외연각목토기는 구연의 바깥쪽에 각목문이 시문된 형식의 토기로 돌대문토기의

최종 퇴화형으로 간주되는 형태⁹⁾로 9호 주거지 2차와 3차 생활면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출토 토기의 비중을 통해 보면, 돌대문토기문화가 중심인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의 외면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단사선문이 이중구연 아래끝부분에 가볍게 장식된 것(16호), 이중구연부 전면에 단사선문이 장식된 것(8호)으로 구분된다.

출토된 기종은 대부분이 발형토기인데, 일부 동최대경이 동체 중위에 위치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두형토기·직구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적색마연토기는 6호·9호 주거지에서 직구호형토기, 장동옹형토기 등의 다양한 기종으로 제작된 것이 출토되었다.

【표 4】 주거지별 토기 출토현황

유구	돌대문토기		돌대문+ 구순각목	뉴상 파수	구순 외연 각목	이중 구연+ 단사선	두형 토기	직구호	단도 마연호
	일주 돌대문	절상 돌대문							
5호	●	●							
9호(2차)	●		●		●				
3호	●	●		●			●	●	
9호(3차)	●	●			●			●	
7호				●					
2호				●					
16호						●			
8호						●			
6호									●

석제류는 먼저 농구류로 구분할 수 있는 석도와 석검이 편을 포함해서 총 21점이 출토되었다. 석도는 반월형석도(3호·5호·8호) 11점과 장방형석도(3호·7호) 6점이 출토되었고, 석검은 2호·9호 1차생활면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공구류로 구분되는 유물로 합인석부는 대형주거지(3호, 9호 2차·3차생활면)에서 4점 출토되었고, 이외에 석착 역시 대형주거지(2호·3호·9호 2차생활면·16호)에서 출토되었다.

방추차는 토제와 석제 모두 출토되었는데 3호·5호·7호·8호·9호 1차·3차생활면에서 총 20점(토제16점, 석제 4점)이 출토되었다. 어망추는 3호에서 출토되었는데 개별로 출토된 4점 외에 북서쪽 한쪽에 군집을 이루면서 총 62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투망을 이용하여 위천에서 적극적인 어로 활동을 빈번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로 금번 조사에서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숫돌은 석제가공용(표면의 마모면이 넓게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으로 마모됨)과 옥가공용 숫돌(마모면적이 좁고 길게 중앙부에 'U'자상의 골이 깊게 파여 마모됨)로 구분할 수

9) 정원철, 2012, 「중부지역 돌대문토기의 편년 연구」, 『韓國靑銅器學報』 第11호.

있다. 석제가공용 숫들은 3호·5호·8호·9호 3차생활면에서 총 10점이 출토되었고, 옥가공용 숫들은 2호·9호 3차생활면에서 출토되었다.

무기류로 구분되는 유물로 석촉 총 5점이 출토되었는데 편평형 4점, 능형 1점이 출토되었다. 2호에서 출토된 4점 중 3점은 편평형에 축신이 삼각형을 이루며 기부가 호상으로 만입되는 형식이고, 1점은 신부가 능형인 유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9호 1차생활면에서 출토된 석촉은 단면이 절단된 것으로 편평형이나 기부가 탈락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장신구류도 출토되었는데 토제장신구와 옥제장신구로 구분되고 옥제장신구는 관형(管形)과 구형(球形)으로 세분되며 토제장신구는 구형만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옥제 관형장신구는 6점이 군집형태로 출토되었고, 9호 3차생활면에서 출토된 장신구는 모두 중앙에 투공이 있는 구형으로 옥제 2점, 토제 1점이 출토되었다.



사진 4. 9호 주거지 출토 (일주)돌대문토기(左) 및 구연부 세부(右)



사진 5. 9호 주거지 2차 생활면 출토 (일주)돌대문토기편



사진 6. 3호 주거지 출토 절상돌대문 발형토기

사진 7. 3호 주거지 출토 절상돌대문토기편 일괄



사진 8. 9호 주거지 출토 절상형돌대문토기(左) 및 토기 단면(右)



사진 9. 9호주거지 출토 돌대문+구순각목문토기편 입면(左) 및 구연세부(右)



사진 10. 2호 주거지 출토 뉴상파수토기



사진 11. 7호 주거지 출토 뉴상파수토기



사진 12. 5호 주거지 출토 돌대문+거치문토기



사진 13. 5호 주거지 출토 돌대문토기



사진 14. 9호 주거지 2차 생활면 출토 구순외연각목문토기편



사진 15. 9호 주거지 3차 생활면 출토
구순외연각목문토기



사진 16. 8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사진 17. 16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左) 및 토기 단면(右)





사진 18. 3호주거지 출토 두형토기편



사진 19. 9호주거지 출토 호형토기편



사진 20. 9호주거지 출토 발형토기편(저장공)



사진 21. 9호 주거지 3차 생활면 출토 단도마연 장동옹편



사진 22. 3호 주거지 출토 이형토기



사진 23. 3호 주거지 출토 함인석부



사진 24. 9호 주거지 1차 생활면 석촉 출토상태(左) 및 석촉편 단면(右)





사진 25. 9호 주거지 출토 방추차 일괄



사진 26. 9호 주거지 출토 석도 및 석검편 일괄



사진 27. 9호 주거지 출토 옥가공 숫돌(左) 및 숫돌 단면(右)



사진 28. 3호 거지 출토 방추차 일괄



사진 29. 3호 주거지 출토 어망추근



사진 30. 3호 주거지 출토 관옥



사진 31. 9호 주거지 출토 장신구류

3. 시설과 유물출토위치 등을 통해 본 주거지 공간활용

함양 한들유적에서 조사된 16동의 주거지 중에 2호·3호·8호·9호 등의 대형주거지는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주거지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유구이다. 이를 통한 함양 한들유적 및 무문토기 초기~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자료를 학계에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의 장방형주거지의 경우는 대부분 위석식 노지를 구비하고 있는데 특히, 위석식 노지는 토광위석식 노지 2동(5·1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상위석식 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노지의 위치는 장축방향의 중앙지점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반대되는 방향에 출입시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지의 위치에 따른 주거지의 공간분할과 출입시설의 위치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 가운데 초대형 장방형주거지인 3호 주거지에서는 장축방향 중앙부에서 북단벽에서 약 370cm 정도로 이격되어 북쪽으로 치우쳐진 지점에서 석상위석식 노지가 나란하게 열상 조성되어 있다.(북쪽 노지 길이 110cm, 너비 60cm. 남쪽 노지 길이 93cm, 너비 73cm) 이는 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후의 온도차나 사용량에 따른 노지 2개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경제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다른 형태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노지이지만 중앙부에 상석이 깔려있지 않아 공간 분할하여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노지가 마련된 것이 2호에서 조사되었다. 이들 노지는 남-북축으로 나란하게 주거지의 길이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두고 있으며 북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노지의 크기가 남쪽과 북쪽이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남쪽의 것이 작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또한 노지의 가장자리의 위석부가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는 돌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화구(火口)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과정 이 부분에 탄화된 목탄이 가장 두텁게 잔존하고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리고 3호의 경우 내부공간에서 노지가 북쪽에 치우쳐진 반면에 동장벽의 남쪽 가까이 탄화목재가 안쪽으로 고스란히 매몰된 것이 발견되었다. 한쪽 판재의 길이 70~80cm, 너비 32~38cm 정도의 판재가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그 상부에는 횡가하여 길이 약 150cm, 두께 3cm 목재가 있다. 또한 판재의 그 가장자리에 너비 7~10cm의 목재가 각각 노출되었는데 이는 기둥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00 참조). 이러한 전반적인 노출 상태를 미루어 보아 이곳에는 여닫이문과 같은 출입시설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서장벽부에도 이와 유사한 판목재가 노출되었는데 그 규모는 길이 60~70cm, 너비 25~30cm 정도로 동장벽부에 비해서 작다. 따라서 남동벽의 출입문이 주문(主門)이었고 서편은 보조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호에서 조사된 탄화목재의 노출상태를 비롯하여 다른 주거지들의 조사내용을 통한다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여러 고고학적인 주거지의 건축구조의 이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이곳에서 조사된 9호 초대형 주거지는 장축방향으로 2열의 초반(礎盤)을 가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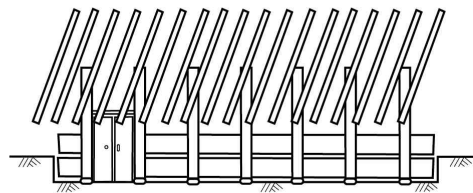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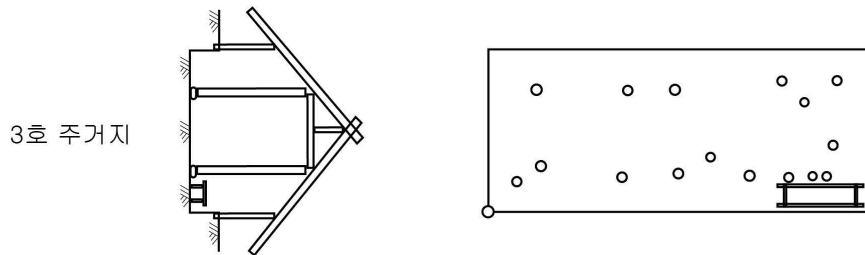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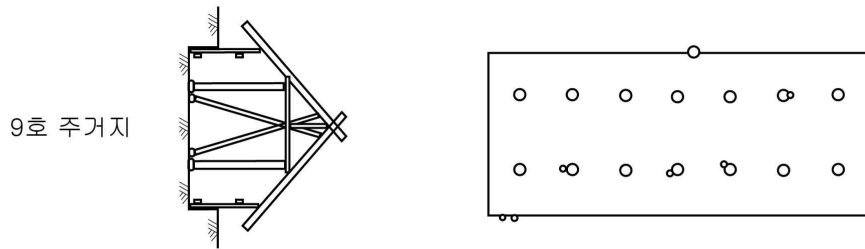


사진 32. 주거지 내 초반 및 목재 함몰양상으로 본 추정 복원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고영훈 교수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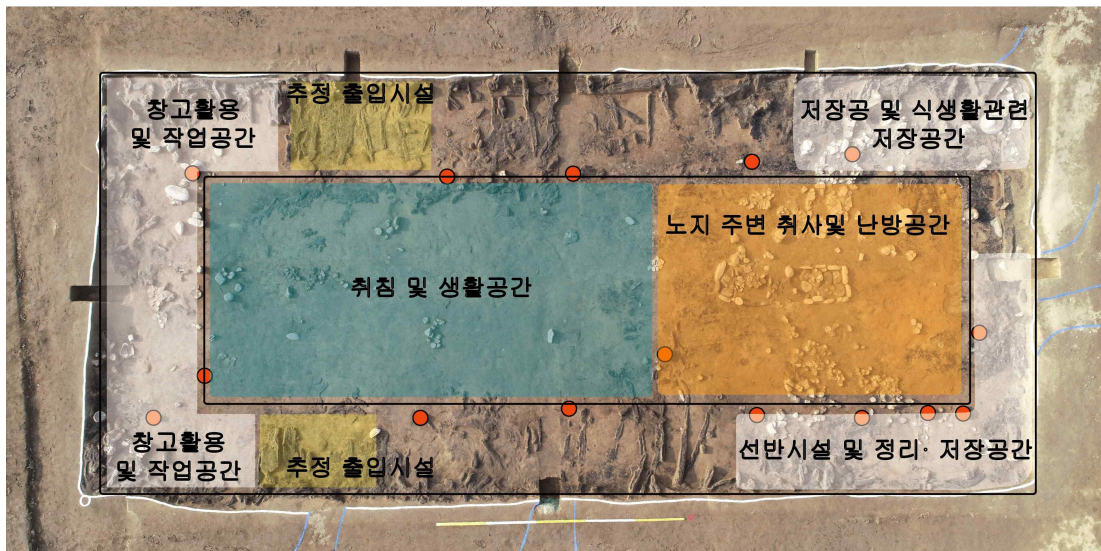


사진 33. 3호주거지 내 초반·유물·목재 함몰양상으로 본 공간활용 추정지



사진 34. 3호 주거지 저장공 사용 대형 발형토기편



사진 35. 9호주거지 3차 생활면 저장공 사용 발형토기편

심주열 7개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3호는 벽면에 길이 약 80~100cm, 두께 8~10cm 정도의 목재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여기에 너비 25~35cm 정도의 판재를 2단 이상 횡간한 뒤 그 상부에 적갈색점토를 발라 벽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석식 노지 주변으로는 점토를 바른 후 불다짐하여 바닥면을 보강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거지의 다른 상면에 비해서 약 5cm 정도 높게 조성하여 안락한 수면공간을 확보하여 혹시나 있을 누수나 습기 등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동 공간은 단순하게 기반층인 사질토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공간활용 부분을 살펴본다면, 3호와 9호 주거지의 경우 복단벽 가까이에 대형의 옹형토기나 목이 긴 호형토기를 주거지 바닥에 수혈을 파고 직립하게 보관하여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 지점 부근에서 각종 기종과 크기가 다른 토기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곳에서 각종 취사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탄화목재의 잔존상태를 통한다면, 선반과 같은 공간활용 시설도 마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남쪽지점에도 저장공간이 있었으며 방추차, 장방형석도, 합인석부 등의 농공구류들이 주로 출토되고 있어(2호, 3호, 9호) 일부 공간 내에는 작업과 관련된 내부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입지와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본 함양 한들지역의 생활상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에서 다양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표 4]참조) 대부분 파손되어 출토되어 기형은 정확하지 않지만 돌대문이 장식된 대형토기들은 심발형계통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이중구연과 '이중구연+단사선문 또는 거치문'이 조합된 것이다. 단사선문이 '이중구연 아래끝부분에 가볍게 장식된 것'(16호)과 '이중구연부 전면에 단사선문이 장식된 것'(8호), '이중구연상에 거치문을 장식한 것'(5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금번 조사에서는 공열문토기가 1점도 출토되지 않은 점은 향후 주거지의 조성시기와 남강 수계역에서의 대형장방형 수혈주거지의 계통 파악에 참조될 것이다. 그 외 목이 긴 대형의 호형토기와 장동형의 단도마연토기가 3호·9호에서 출토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호형토기는 서북지방(세죽리), 단도마연토기는 동북지방(나진 초도)에서 주로 그 계통을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전통을 가진 토기가 이곳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청동기시대 농공구류는 다양하게 출토되었다.【표 5】참조) 농구류에서는 반월형석도 11점, 장방형석도 6점, 석검 2점 등으로 석도의 주류를 이룬다. 그 외 석검이 2호·9호에서 출토되었다. 함양 한들유적 동쪽지역에서 많은 조사가 진행된 후에 밝혀지겠지만 주변에 경작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농경생활이 어떤식으로 행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석도 및 석검을 이용한 채집활동 및 수확활동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주거지내에서도 식재료 등의 가공을 위한 석도의 사용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구·무기류에서는 합인석부 4점, 석착 5점, 석촉 5점, 토제방추차 16점, 석제방추차 4점, 지석(숫돌·갈돌) 10점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부와 석착으로 목재사용을 암

【표 5】 함양 한들 생태환경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농공구류 출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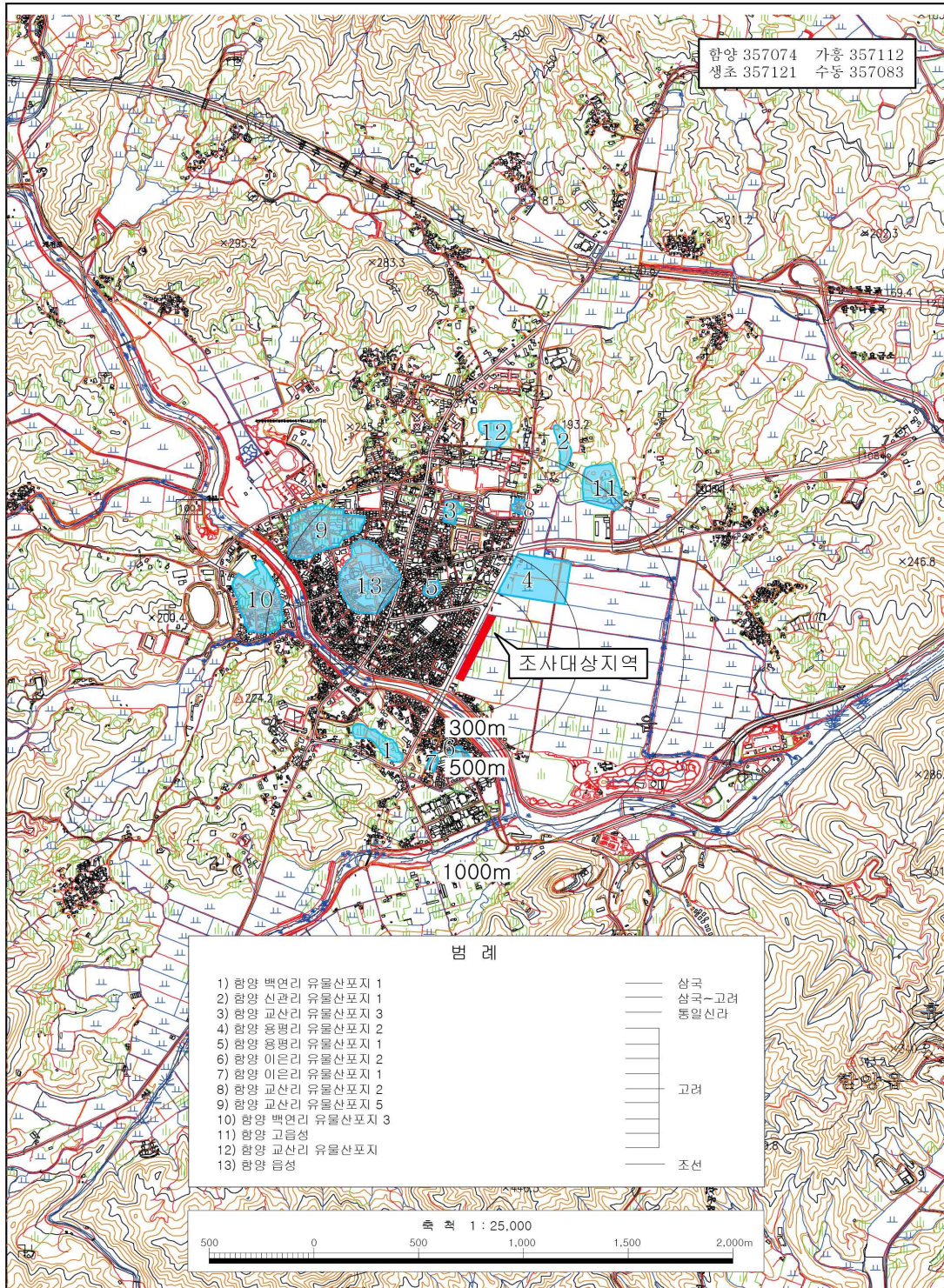
출토 유구	농 구					공 구						무 구	장신구		
	석 도			석검	기타	합인석부	석착	방추차	어망추	지석			석촉	옥제	토제
	반월형	장방형	편							석제가공	옥가공				
2호		3		1			2				1	4			
3호	2	1	1			1	1	4(토) 2(석)	5(토) 62(군)	5			6		
4호					1										
5호	1	1						1(토)		1					
7호			1					1(토)							
8호								3(토) 1(석)		1					
9호 (3차)	8				1	2		6(토) 1(석)		3	2		2	1	
9호 (2차)						1	1								
9호 (1차)		1		1				1(토)				1			
16호							1								
합 계	11	6	2	2	2	4	5	16(토) 4(석)	67	10	3	5	8	1	

시해주며 이를 통한 연료사용 및 생활공간 설치 및 보수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무기인 석촉은 출토된 주거지가 2곳에 불과하고 많은 양이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외부집단과의 세력다툼 등의 전쟁·전투의 목적 보다는 수렵생활을 하는데 사용한 무기류에 무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함양 한들 청동기시대유적의 조사성과 및 의의

금번 조사된 16동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주거지들로 함양 한들유적의 주거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돌대문토기가 출토된 장방형 주거지로 볼 때 무문토기시대 초기 후반~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적이다. 그리고 주거지의 규모로 볼 때도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와는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요령성 길림성지역의 초기 및 전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장방형에 속하여 취락 집단 내부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에는 ‘신석기 말기의 특징이 보이는 사실성 태토를 가진 토기’와 ‘이중구연의 단사선문 또는 거치문을 시문하고 있으면서 저부로 갈수록 좁은 형태의 기형을 이루는 것’ + ‘구연 아래 외면에 점토띠를 둘러 장식한 돌대문토기에 평저인 저부를 가진 새로운 토기 문화’ + ‘토기 외면에 붉은 단(丹)을 덧칠하여 바른 단도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어 이러한 토기를 공반유물로 하는 집단이 남강 상류역인 함양 위천의 넓은 충적대지상에 취락이 과연 어느 시기에 형성되어 있었고 어떠한 계통과 연결선상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된 유구 가운데 탄화목재가 양호한 3호, 8호, 9호, 14호 주거지에 대하여는 AMS시료를 유구 당 2개 이상 복수로 의뢰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AMS의 9호, 14호 주거지의 분석 결과 내용을 통한다면 기원전 12세기에서부터 10세기 전반대로 편년 가능한 연대 값이 도출되어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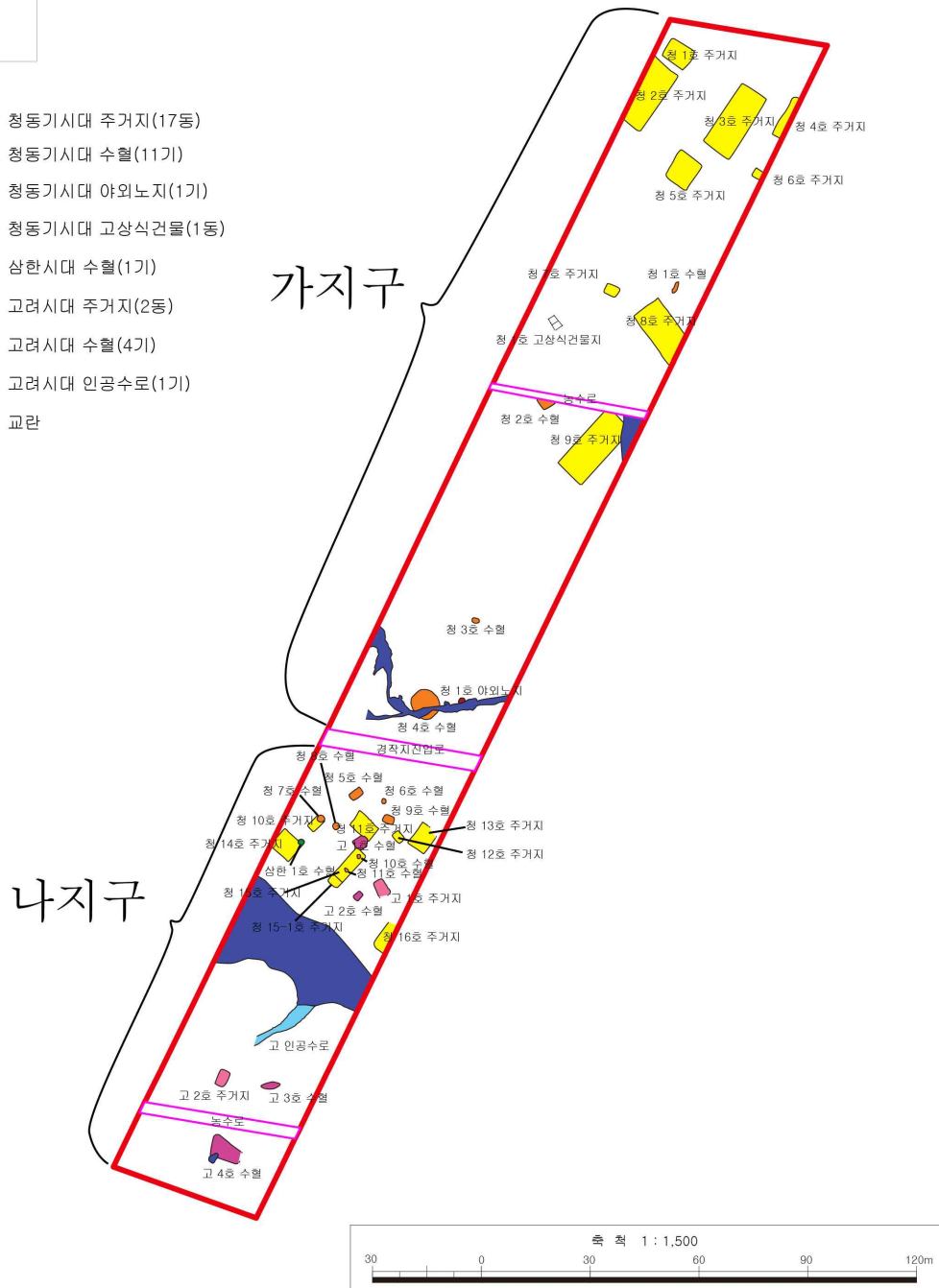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금번 주거지 조사 내에서는 공열토기가 1점도 출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통과 하한연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유적은 무문토기시대 초기의 후반에서부터 청동기시대 전기의 전반부 정도에 해당되는 새로운 유적으로 남강 유역권내에 향후 주목할 만한 중요 유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 함양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더욱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도 1. 조사대상지역 주변유적분포도(1:25,000)



- 청동기시대 주거지(17동)
- 청동기시대 수혈(11기)
- 청동기시대 야외노지(1기)
- 청동기시대 고상식건물(1동)
- 삼한시대 수혈(1기)
- 고려시대 주거지(2동)
- 고려시대 수혈(4기)
- 고려시대 인공수로(1기)
- 교란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유구배치도(1:1,500)

울산 상천리유적

윤재빈(울산문화재연구원)

I.조사개요

III.조사내용

II.유적의 입지 및 주변환경

IV.조사성과 및 의의

I.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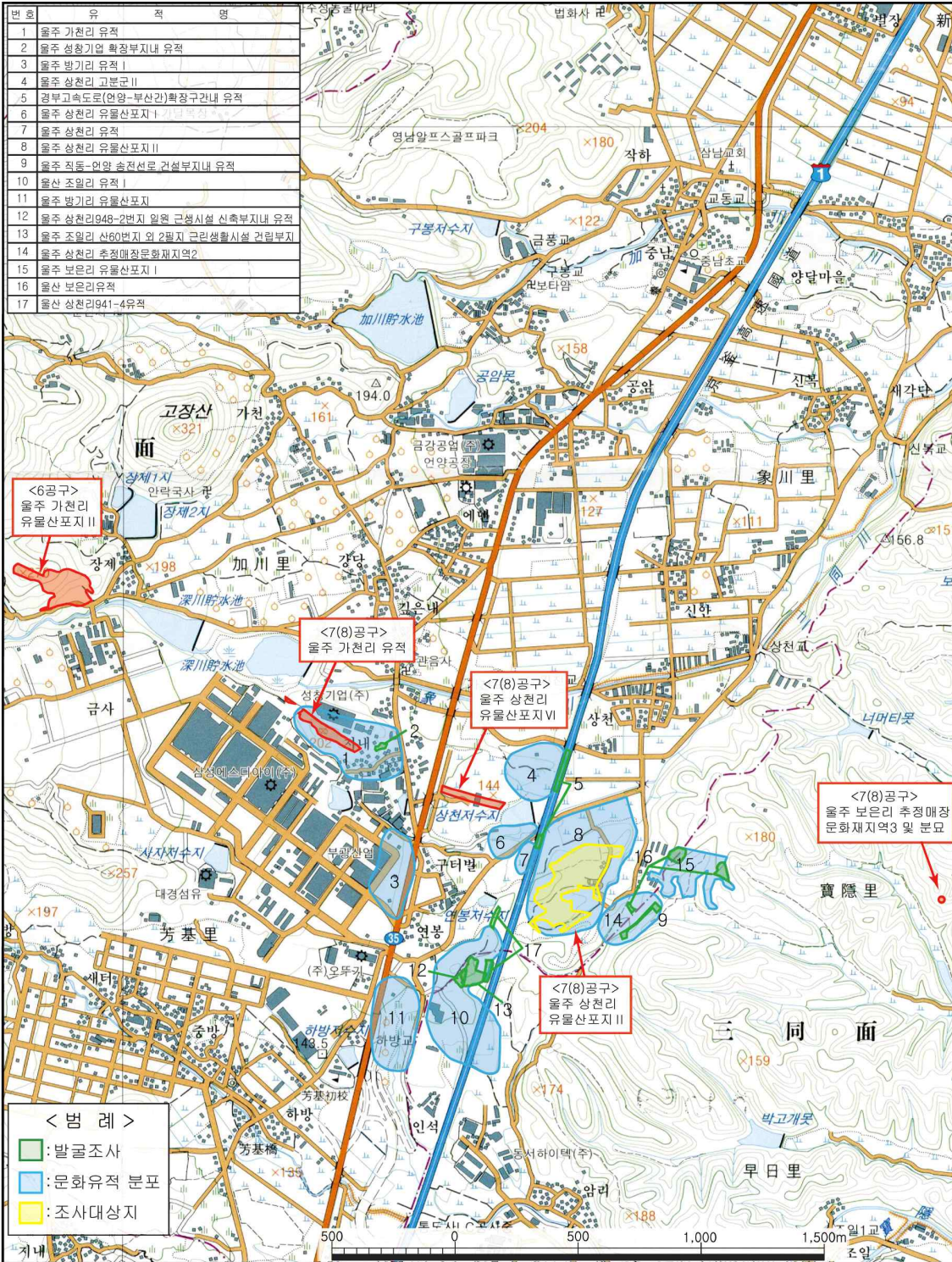
- 조사명 :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2~10공구)부지 내 유적(울주 상천리 유물 산포지Ⅱ)
- 조사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702-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61,995㎡(정밀발굴조사)
- 조사기간 : 2015년 04월 08일 ~ 2018년 06월 05일
- 조사경위

한국도로공사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신설을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상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2013년 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일부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울산문화재연구원에서 2014년~2020년에 걸쳐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울산 상천리유적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구간 중 울주 상천리유물산포지Ⅱ 지역에 포함되는 구간으로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조선시대 주거지, 묘 등이 확인되어 2015년~2018년에 걸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II.유적의 입지 및 주변환경

1.위치와 지리적 환경(도면 1 참조)

유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702-1번지 일원으로, 유적이 소재하는 삼남읍은 울주군의 남서쪽에 위치한다. 삼남읍의 서쪽에는 가지산(1,241m), 신불산(1,159m), 영축산(1,081m) 등으로 이어지는 해발고도 1,000m이상의 산지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동쪽에는 천성산(922m), 정족산(749m) 등의 산지가 발달해 있다. 유적은 삼남읍의 동쪽에 발달한 산지의 서쪽에 형성된 완만한 구릉상에 입지한다. 유적이 입지하는 구릉은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고도는 150m내외이다. 유적의 서쪽에는 남-북 방향의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35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구릉 주변으로 곡간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도면 1. 울산 상천리유적()과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2. 주변유적 현황(도면 1 참조)

유적의 주변으로는 기존 지표·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었다.¹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는 울주 성장기업 확장부지내 유적¹¹⁾, 경부고속도로(언양~부산간)확장 구간내 유적¹²⁾, 울주 상천리 948-2번지 일원 근린시설 신축부지내 유적¹³⁾, 울산 보은리 유적¹⁴⁾, 울산상천리941-4유적¹⁵⁾ 등이 있다.

그 외의 유적은 모두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곳으로 대부분이 유물산포지이다. 울산 상천리유적은 기존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울주 상천리 유물산포지Ⅱ의 분포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의 매장문화재 상세는 <표 1>과 같다.

<표 1> 주변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유적 성격	비고
1	울주 가천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문화유적분포
2	울주 성장기업 확장부지내 유적(울산 가천리 지내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조사
3	울주 방기리유적 I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유적	문화유적분포
4	울주 상천리고분군Ⅱ	삼국시대 고분	문화유적분포
5	경부고속도로(언양~부산간)확장구간내 유적(울산 상천리유적)	조선시대 가마.건물지.구상유구	발굴조사
6	울주 상천리 유물산포지 I	청동기시대 유적	문화유적분포
7	울주 상천리유적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가능성	지표조사
8	울주 상천리 유물산포지Ⅱ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유적	문화유적분포
9	울주 직동-언양 송전선로 건설부지내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묘	시굴조사 후 수습 발굴조사
10	울산 조일리유적 I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묘	문화유적분포
11	울주 방기리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유적	문화유적분포
12	울주 상천리948-2번지 일원 근린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수혈, 조선시대 묘	발굴조사
13	울주 조일리 산 60번지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건립부지내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묘.수혈, 고려시대 와요	발굴조사
14	울주 상천리 추정매장문화재지역2	청동기시대 주거지	표본조사
15	울주 보은리 유물산포지1	청동기시대 주거지 외	표본조사
16	울산 보은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외	발굴조사
17	울산 상천리941-4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한시대 묘 외	발굴조사

10)蔚山光城市 外, 2004,『文化遺蹟分布地圖-蔚州郡-』.

11)蔚山文化財研究院, 2005,「附錄2.蔚山加川里지내遺蹟」,『蔚山屈火里長劍遺蹟Ⅰ』.

12)蔚山發展研究院 文化財센터, 2005,『蔚州 象川里 遺蹟』.

13)蔚山文化財研究院, 2012,『蔚山早日里1071-2遺蹟』.

14)蔚山文化財研究院, 2017,『蔚山寶隱里遺蹟』.

15)蔚山文化財研究院, 2019,『蔚山象川里941-4遺蹟』.

Ⅲ. 조사내용

울산 상천리유적은 청동기시대~근대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특히 각 시대마다 주거지와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취락이 존속하였던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유적의 시대 별 유구 상세는 <표 2>와 같다. 본 장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삼한시대를 중심으로 유구와 유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시대 별 유구 현황

시대 \ 유 구	주거지	수혈	구	건물지	묘	화덕 · 소성유구	계
청동기	244	25	3	-	1	-	273
삼한	12	25	-	-	1	-	38
삼국	6	2	2	10	1	-	21
고려·조선	21	11	10	12	44	8	106
근대	-	-	-	-	13	-	13
계	283	63	15	22	60	8	451



도면 2. 울산 상천리유적 청동기·삼한시대 유구배치도(1/2,000)

1. 청동기시대

1) 유구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244동, 수혈 25기, 구 3기, 석관묘 1기 등 총 273기가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전역에 고르게 분포한다(도면 2).

(1)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244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유적의 구릉 능선부와 동사면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서사면과 남사면에도 일부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방형계 주거지이며, 원형의 송국리형 주거지(청동기시대 213호)가 1동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폭을 파악할 수 있는 110동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장폭비 1:1.6미만을 방형, 1:1.6이상~1:2.3미만을 장방형, 1:2.3이상을 세장방형으로 분류하였다(도면 3)¹⁶⁾. 분류 결과 방형 주거지는 75동, 장방형 주거지는 28동, 세장방형 주거지는 7동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면적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지의 면적은 장-폭을 파악할 수 있는 110동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20㎡미만을 소형, 20㎡이상~35㎡미만을 중형, 35㎡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였다(도면 4)¹⁷⁾. 분석 결과 소형 주거지는 65동, 중형 주거지는 31동, 대형 주거지는 14동으로 파악되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주구, 저장혈 등이 있으며, 일부 적석 행위가 이루어진 주거지도 있다. 외부시설로는 배수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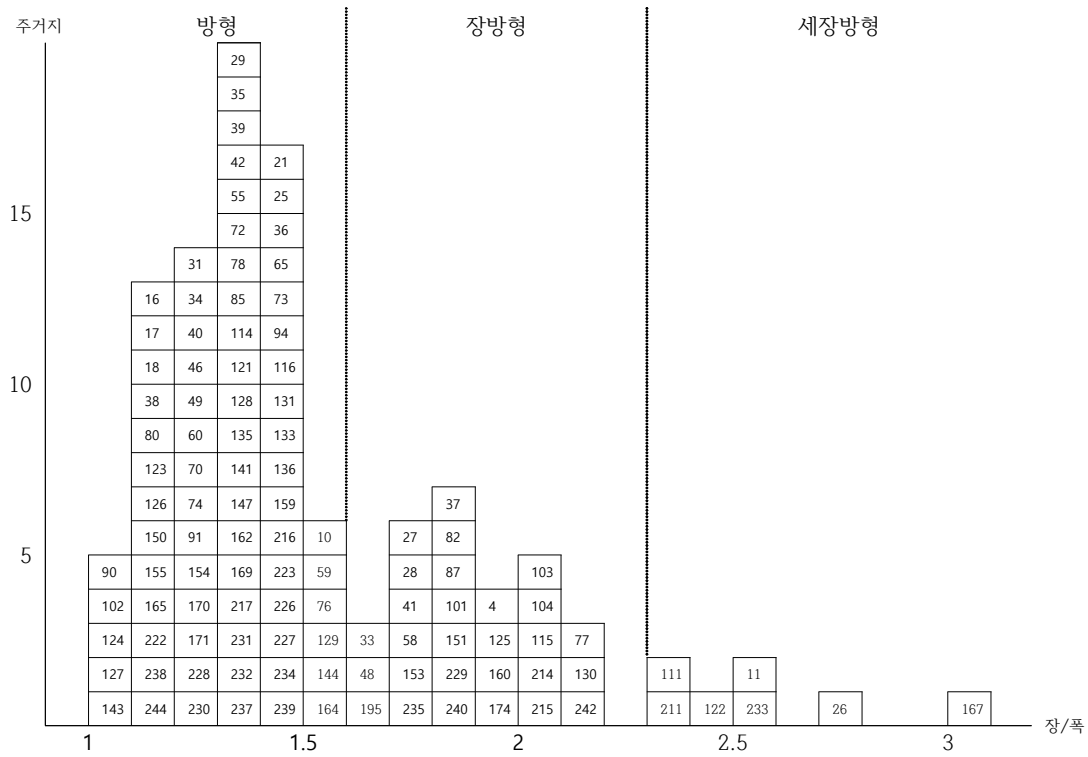
노지는 상면식과 수혈식이 구분된다. 노지가 확인되는 166동의 주거지 중 상면식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142기, 수혈식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21기로 상면식 노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다. 노지의 수는 주거지의 규모 및 평면형태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장)방형 주거지는 단수 노지가 확인되며, (세)장방형 주거지 일부는 2개 이상의 복수 노지가 확인된다.

주혈은 대부분 4·6·8·10주식과 같이 정연한 배치양상을 보이지만, 부정연한 배치양상을 보이거나 아예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형의 세장방형 주거지 26호와 167호는 주거지의 장축 중앙을 따라 1열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확인된 주혈의 단면은 대부분 썩기형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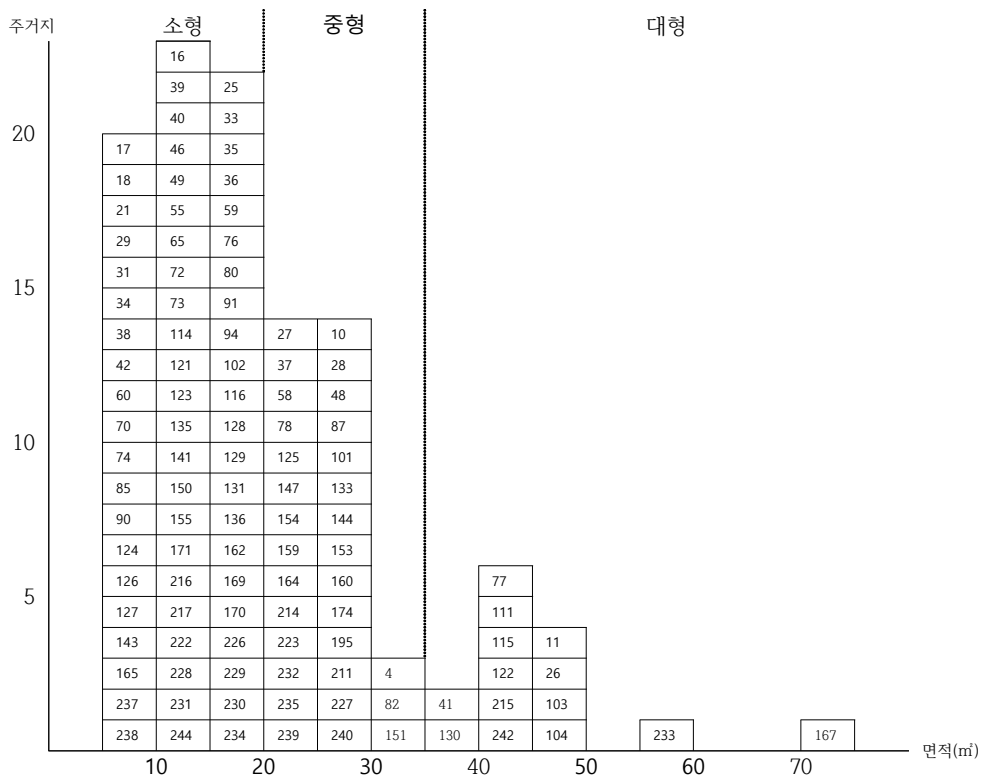
벽주구는 네 벽을 일주하는 형태와 일부 벽에만 설치된 형태로 구분되며, 벽주구 내에 벽주혈을 조성한 사례도 확인된다. 일부 주거지는 벽주구의 어깨선을 따라 주거지 상면에 얇은 돌을 설치하였다. 배수구는 내부 벽주구와 이어져 외부에 설치되었다.

16)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본 고에서의 비율은 울산 상천리유적 내에서의 분류 기준임을 밝혀둔다.

17) <도 4>에서 소형과 중형의 분류는 도수분포표 상 구분이 모호하여 동진숙(2003)의 분류 안을 참고하였다.



도면 3. 주거지 평면형태 분류(*수치는 유구번호)



도면 4. 주거지 규모 분류(*수치는 유구번호)

(2)수혈

청동기시대 수혈은 총 25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에 가까우며, 말각(장)방형, 구형, 부정형 등의 형태도 확인된다. 수혈 내부에서는 대부분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11호·12호·19호 수혈의 내부에서는 적석이 확인되었다. 특히 12호 수혈은 적석 하부 바닥에서 피열흔이 확인되었다.

(3)기타

주거지와 수혈 외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구 3기,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구는 유적의 북서쪽 사면의 등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1호 구는 주거지와 중복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3호 구는 대체로 주거 균을 에워싸고 있어 환호의 가능성이 있다.

석관묘는 66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벽석은 장벽과 단벽 일부에서만 확인되는데, 판석을 세워쌓기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출토유물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 800여점(±α)으로 무문토기 428점(±α), 석기 357점, 토제품 21점이다. 무문토기는 심발, 천발, 호, 옹, 적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문양은 복합문과 단독문이 확인되는데, 문양의 상세는 <표 3>과 같다.

표 3.청동기시대 무문토기 문양(*수치는 개체수, 복원·정리후 수량 변동 가능)

문양 기종	복합문									단독문				
	구순 돌류	구순 돌류 단사	구순 돌류 X	구순 공열 단사	이중 공열 단사	이중 거치	이중 돌류 단사	돌류 단사	이중 단사	구순	돌류	공열	단사	+
심발	1	2						3		1	4	1		
천발	1													
호						1				1			2	
구연 부	7		1	1	1		2	5	2	4	30	2	5	1

석기는 석검, 석촉, 석창, 석도, 석부, 석착, 지석, 갈판, 갈봉,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기 기종과 수량의 상세는 <표 4>와 같다.

표 4. 청동기시대 석기 출토 현황(*수치는 개체수, 복원·정리후 수량 변동 가능)

석검			석촉				석창		석부				석 착	석도		지 석	갈 판	선 형	미 완 성	기 타
이 단	유 경	편	이 단	일 단	무 경	편	유 경	편	합 인	편 평	주 상	환 상		반 월 형	동 북 형					
5	2	3	1	13	7	11	2	1	16	25	13	2	5	34	4	36	25	48	62	32
10			32				3		56				5	34	4	36	25	48	62	32

토제품은 방추차 20점과 어망추 1점이 출토되었다. 방추차는 단면형태가 제형과 장방향으로 분류된다.

2.삼한시대

삼한시대 유구는 주거지 12동, 수혈 25기, 옹관묘 1기 등 총 38기가 조사되었으며, 유적의 최남단 구릉 정상부와 남사면에 집중 분포한다. 일부는 유적의 북쪽 구릉 동사면과 북사면에서 확인된다(도면 2).

1)유구

(1)주거지

삼한시대 주거지는 총 12동이 조사되었다. 주로 구릉의 남쪽 정상부에 입지하는데 청동기시대 주거군과 혼재되어 분포하며, 일부는 중복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이며, 말각방향이 2동(1·36호 주거지)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노시설과 벽주구가 확인된다. 노시설은 5·11·12·38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5호 주거지는 상면식, 나머지는 부뚜막식이다¹⁸⁾. 11·12호 주거지의 부뚜막에는 지각으로 추정되는 할석이 확인된다. 벽주구는 11·12·16·30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벽면을 따라 설치되었다.

(2)기타

삼한시대 주거지 외 유구로는 수혈 25기와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삼한시대 수혈은 대체로 주거지의 분포범위 내에 위치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다. 수혈 내부에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옹관묘는 청동기시대 121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옹관묘의 형태는 합구식이며, 매장방식은 횡치식이다. 주옹은 봉상파수가 부착된 무문토기 호이며, 막음옹은 삼각형점토대 옹이다. 주옹과 막음옹 외 부장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출토유물

삼한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 69여점($\pm \alpha$)으로 토기 65여점($\pm \alpha$), 석기 3점, 토제품 1점이다. 토기는 점토대토기, 옹, 호, 두형토기, 시루,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점토대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모두 확인된다. 석기는 합인석부 1점과 미완성 석기 1점, 지석1점, 토제품은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삼한시대 출토 유물 기종은 <표 5>와 같다.

18) 金羅英, 2007, 『嶺南地域 三韓時代 住居址의 變遷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표 5. 삼한시대 출토유물 기종 현황

기종 유구	점토대토기		옹	호	두형토기	시루	파수	방추차	석기
	원형	삼각형							
1호 住									○
2호 甕		○			○			○	
3호 甕		○							
4호 甕	○						○(붕)		
6호 墓		○		○					
11호 住	○	○	○						
12호 住		○	○						
15호 甕							○(붕)		
26호 甕						○			
27호 甕		○							
31호 住	○	○	○	○	○	○	○(붕)		
32호 甕						○			
36호 住						○			
37호 甕									○

3. 취락의 조성시기

청동기시대 취락의 조성시기는 토기문양, 석검, 석촉 등 비교적 편년에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볼 때, 복합문, 구순각목단독문, 이단병식석검, 이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는 전기 후반에서 단독문(돌류문·공열문·단사선문), 일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는 후기로 판단된다. 삼한시대 취락의 조성시기는 원형점토대토기 단독기와 와질토기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기원전 2세기 전후~기원전 1세기 중후반으로 판단된다¹⁹⁾.

IV. 조사성과 및 의의

울산 상천리유적은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취락이 조성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울산지역 검단리유형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도 송국리문화와의 접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기는 전기 후반~후기에 집중한다. 삼한시대 취락은 기원전 2세기 전후~기원전 1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로 보아 청동기시대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 양상은 뚜렷하지 않다. 향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유적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와 삼한시대 취락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19) 申英愛,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사진 1. 유적 원경(북→남)



사진 2. 유적 원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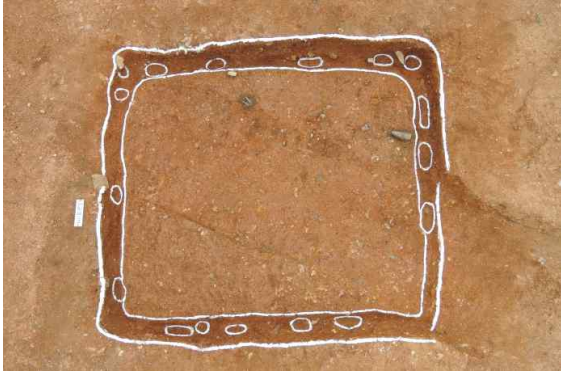


사진 3. 청동기시대 18호 주거지



사진 4. 청동기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 청동기시대 69호 주거지



사진 6. 청동기시대 69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7. 청동기시대 69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8. 청동기시대 26호 주거지



사진 9. 청동기시대 211호 주거지



사진 10. 청동기시대 21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1. 청동기시대 91호 주거지



사진 12. 청동기시대 9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3. 청동기시대 115호 주거지



사진 14. 청동기시대 115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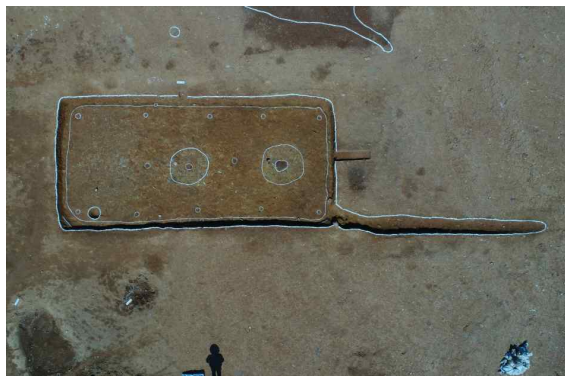


사진 15. 청동기시대 242호 주거지



사진 16. 청동기시대 242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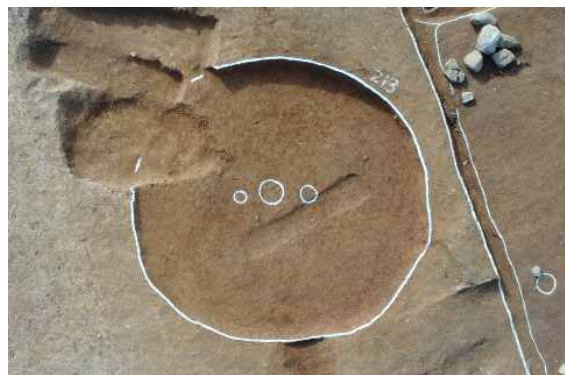


사진 17. 청동기시대 213호 주거지



사진 18. 청동기시대 12호 수혈



사진 19. 청동기시대 11호 수혈



사진 20. 청동기시대 11호 수혈 출토유물



사진 21. 청동기시대 3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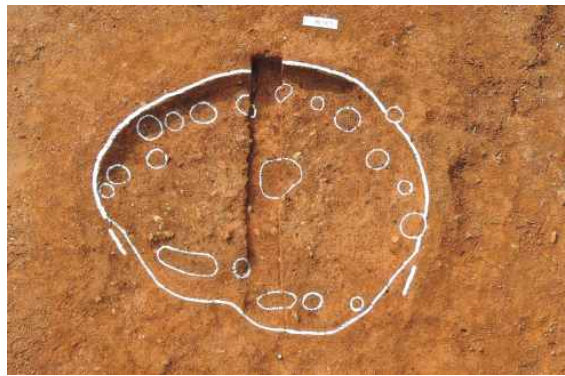


사진 22. 삼한시대 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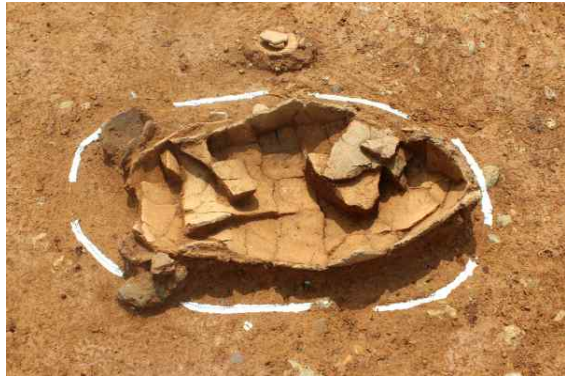


사진 23. 삼한시대 6호 옹관묘



사진 24. 삼한시대 6호 옹관묘 주옹



사진 25. 삼한시대 6호 옹관묘 막음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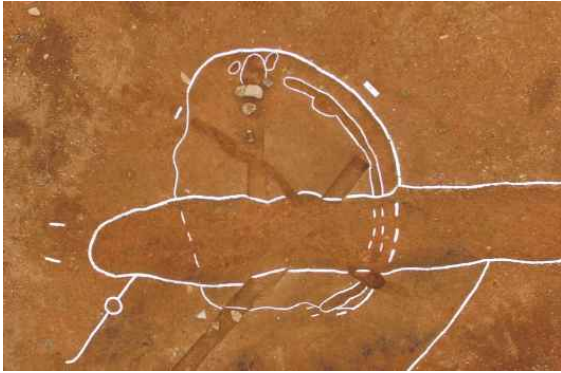


사진 26. 삼한시대 11호 주거지



사진 27. 삼한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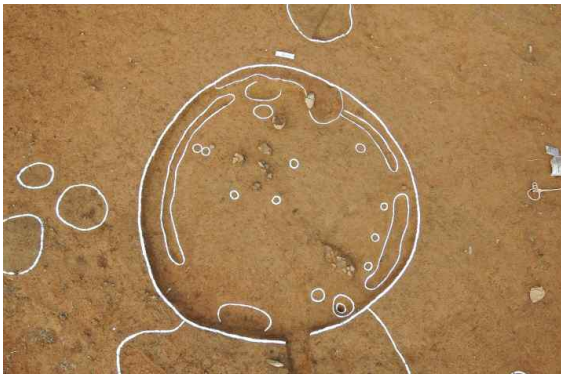


사진 28. 삼한시대 12호 주거지



사진 29. 삼한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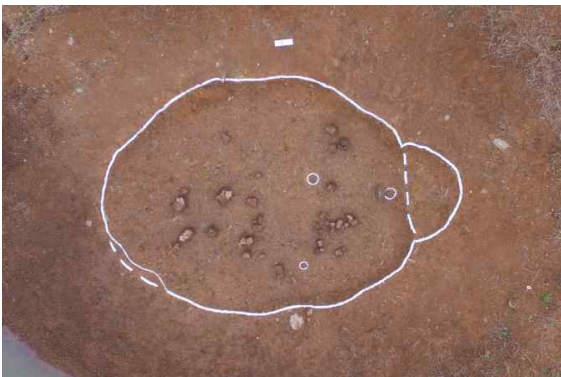


사진 30. 삼한시대 31호 주거지



사진 31. 삼한시대 3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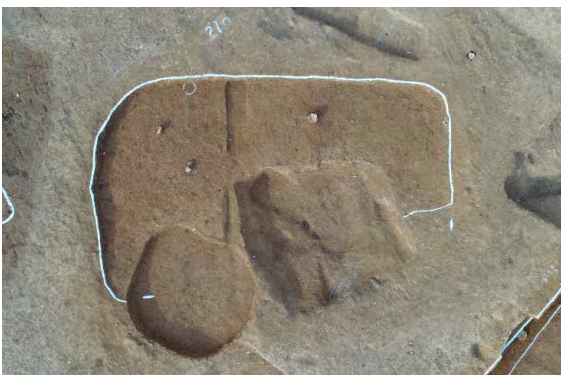


사진 32. 삼한시대 36호 주거지



사진 33. 삼한시대 36호 주거지 출토유물

경주 천군동 유적

김경수 (대동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경주 천군동 유적은 경주분지의 동쪽 보문호의 남쪽에 위치하여 경주분지로 향하는 남동방면의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2015년부터 유적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취락, 분묘, 생산, 도로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대규모 복합유적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경주 천군동 유적 중 천군동사지 주변 선상지 일대에서 확인된 제 I-1구역의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에 관한 것이다. 제 I-1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88기, 고상건물지 2기, 연암동식 구 7기, 수혈 9기, 구 9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 제철유적을 포함한 시대별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많이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초기단계의 돌대문토기를 공반한 대형주거지부터 울산식 주거가 정형화되는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며, ‘口’자형의 연암동식 구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인다.

II. 유적 개요

1. 유적 위치

경주 천군동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620번지 일원으로 보문관광단지의 남쪽에 천군동 자연부락(천군큰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은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는 선상지 일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해발 102.5~107.5m 정도의 선양부와 선단부 일대에서 주거지가 확인된다.

주변유적으로는 유적과 인접해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알려진 경주 천군동사지(사적 제82호)와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이 분포하며, 탑의 동편에는 천군동 543유적과 천군동 543-1유적(한국문화재단)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범위 내에서는 천군동 182-4유적(성림문화재단)이 조사된 바 있으며, 유적의 남쪽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사된 천군동유적(서라벌문화재단), 진흥문화재단, 흥익문화재단, 서쪽으로는 천군동 산277유적(한국문화재단), 천군동 피막유적(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천군동 유적 범위 중 제Ⅱ구역은 현재 동북아문화재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조사경과

경주 천군동 유적은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기에 앞서 대동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알려졌다. 이후 2014년과 2016년에는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와 표본조사가 실시되어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 삼국시대 생산유구, 생활유구,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조선시대 생활유구 등 여러 시대에 걸친 복합유적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제Ⅰ구역은 대동문화재연구원, 제Ⅱ.Ⅳ구역은 동북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Ⅲ구역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소개하는 유적은 2018~2019년에 조사된 평지 부분의 제Ⅰ-1구역(45,240㎡)이며, 구릉부분인 제Ⅰ-2구역(41,286㎡)은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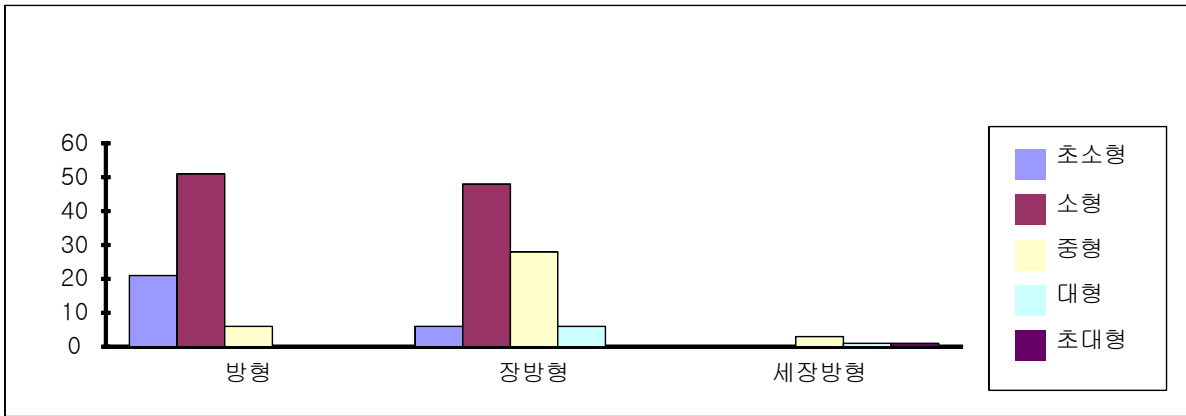
Ⅲ. 유구 및 유물

제Ⅰ-1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혈, 고상식건물지, 연암동식 구, 삼국시대의 수혈, 제철유구, 통일신라시대의 수혈, 와요, 적심, 구, 조선시대의 암거시설, 우물, 시대미상의 야외노지, 수혈, 구, 주혈군 등 총 27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중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88기, 고상건물지 2기, 연암동식 구 7기, 수혈 7기, 구 9기 등으로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제Ⅰ-1구역은 조사면적이 넓어 조사편의상 서라벌초등학교 북편을 A구역, 서라벌초등학교 동편을 B구역, 천군큰마을 중앙 농로의 서편을 C구역, 천군큰마을 중앙 농로의 동편을 D구역으로 총 4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취락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 188기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지만 A구역 49기, B구역 17기, C구역 54기, D구역 68기로 대부분 선양부에 해당하는 천군큰마을 안쪽부분(C, D구역)과 선단부에 해당하는 A구역에 집중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이 있는데, 세장방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평면형태는 장축과 단축의 비율에 따라 1:1.3 미만인 것은 방형(78기), 1:1.3~2.3 미만인 것은 장방형(88기), 1:2.3 이상인 것은 세장방형(5기)로 구분하였다. 내부면적은 10㎡ 이하는 초소형(27기), 10~20㎡은 소형(99기), 20~40㎡은 중형(37기), 40~70㎡은 대형(7기), 70㎡ 이상은 초대형(1기)으로 구분하였다. 평면형태의 변화상은 대체로 세장방형→장방형→방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초대형 주거지 1기는 I-1-A구역 제42호 주거지로 면적이 88㎡정도인데, A구역의 북쪽부분 즉, 선상지의 선단부에 입지하며, 인접해서는 동일 시기로 파악되는 대형주거지인 제4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등이 있으며, 외부시설로는 외부돌출구와 연암동식 주거지의 외곽 전체를 둘러싸는 주구가 있다.

노지는 위석식 2기, 수혈식 98기, 무시설식 56기로 수혈식이 다수를 차지하며, 설치 위치는 단벽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다수이다. 복수의 노지는 18기가 확인되었는데, 위석식 1기, 수혈식 7기, 무 시설식 7기, 수혈식+무시설식이 혼합된 것은 3기이다. 노지가 가장 많이 확인된 I-1-D구역 제50호 주거지에서는 4개의 노지가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주혈은 바닥면 배치의 정형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4주식 58기, 6주식 23기, 8주식 13기, 10주식 2기, 14주식 2기, 16주식 1기가 확인되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4주식은 울산식 주거지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20㎡미만의 소형 주거지에 해당한다. 16주식은 I-1-C구역 제54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중형의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의 규모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벽구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이어지는 구로서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벽구가 설치된 주거지는 A 구역에서만 확인되는데 모두 선단부의 끝자락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외부돌출구는 소수 확인되며, 인접한 구릉 지대인 제 I-2구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외부돌출구는 울산, 경주, 포항 등 동남해안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지역성을 내포하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연암동식 주거지는 주거지 외곽에 돌아가며 주구가 조성된 것을 말하는데, 이번 유적에서 I-1-A 구역 제13.16.35.41.43.48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제48호 주거지의 경우는 벽구 - 외부돌출구 - 외곽주구로 연결되어 있어 그 용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외곽주구만 확인되는 것이 7기 확인되었는데, 이는 중앙부에 조성되었던 주거지가 훼손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바닥면은 기반층을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기반층을 굴착한 후 점토 다짐된 것과 점토를 깔고 불을 놓아 바닥자체가 소결된 것이 있다. 불다짐된 바닥면이 확인된 주거지 중 I-1-B구역 제1.6호 주거지는 중.대형에 속하는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폐기양상은 자연폐기와 화재폐기로 구분되며, 화재폐기 후 적석폐기된 사례도 확인된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자연적으로 폐기되었고,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에서는 탄화된 가구재와 함께 바닥면 또는 벽체에 강한 불을 맞은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의 내부에 적석과 유물

이 함께 폐기된 사례도 보이는데, 탄화된 목재 및 소토 상부에서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1-A구역 제37호와 I-1-C구역 제50호 주거지에서는 뼈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인접한 천군동 피막유적과 천군동 1554유적의 I-5호 주거지에서 2구의 인골이 확인된 바 있어 인골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I-1-D구역 제15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된 곡물이 출토되어 당시 식생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로 850여 점인데, 토기류가 80%를 차지한다. 토기류는 대부분 바닥면에서 깨지거나 흩어져서 출토되었는데, 이 중 발형토기 2점이 포개진 것(I-1-A구역 제14.18호 주거지)도 있다. 기종은 호형, 발형이 있으며 적색마연호도 확인된다. 문양은 돌대문, 공열문(돌류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횡선문, 날알문 등이 시문되어 있는데, 돌류문+단사선문, 구순각목문+돌류문, 횡선문+단사선문, 횡선문+날알문의 복합문도 보인다.

각목돌대문은 구연단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위치에 돌대가 돌아가는 것과 구연에서 0.5~1cm 정도 내려온 지점에 돌대를 부착한 후 각목한 것이 있으며,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된다. 이 각목돌대문은 경주 충효동유적과 경주 금장리유적에서 출토된 돌대문토기와 대동소이하다. 구순각목문은 소수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단독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I-1-C구역 제37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구순각목문+돌류문이 복합된 형태로 출토되었다. 공열문(돌류문)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반관통한 것을 공열문, 내면에서 외면으로 반관통한 형태를 돌류문이라 하는데, 유적에서는 공열문보다 돌류문의 출토량이 많다. 단사선문은 주로 호형토기의 경부와 동체와의 경계에 그은 형태로 11기의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 횡선문은 단독으로 시문된 것은 1점에 불과하고 횡선문+단사선문이나 횡선문+날알문으로 복합된 것이 각각 1점씩 확인된다.

IV. 의의

경주 천군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 초기철기시대 취락, 원삼국시대 분묘와 생산유구, 삼국시대 분묘, 삼국~조선시대 생산유구, 통일신라시대 사찰 등 다종다양한 시대별, 성격별 유구가 군집되어 나타나는 복합유적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제 I-1구역은 나지막한 능선에 둘러싸여 평지에 가까운 선상지 일대에 조성된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의 일부에 해당한다.

제 I-1구역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188기로 동일 사업범위 내 다른 구역의 조사가 완료되면 수 백기의 주거지가 보고될 것이다. 경주분지 내 황성동·용강동·충효동 등지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수는 800여 기라는 점으로 보면, 향후 경주지역뿐 아니라 동남해안 일대에서 단일유적에서 확인된 최대의 취락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제 I-1구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인 A구역 제40·42호는 (초)대형의 주거지로서 석상위석식 노지를 갖추고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의 빠른 시기 혹은 초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비교적 긴 장방형인 B구역의 제2호 주거지는 복수의 노지를 갖추고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이 시문되는 것으로 보아 전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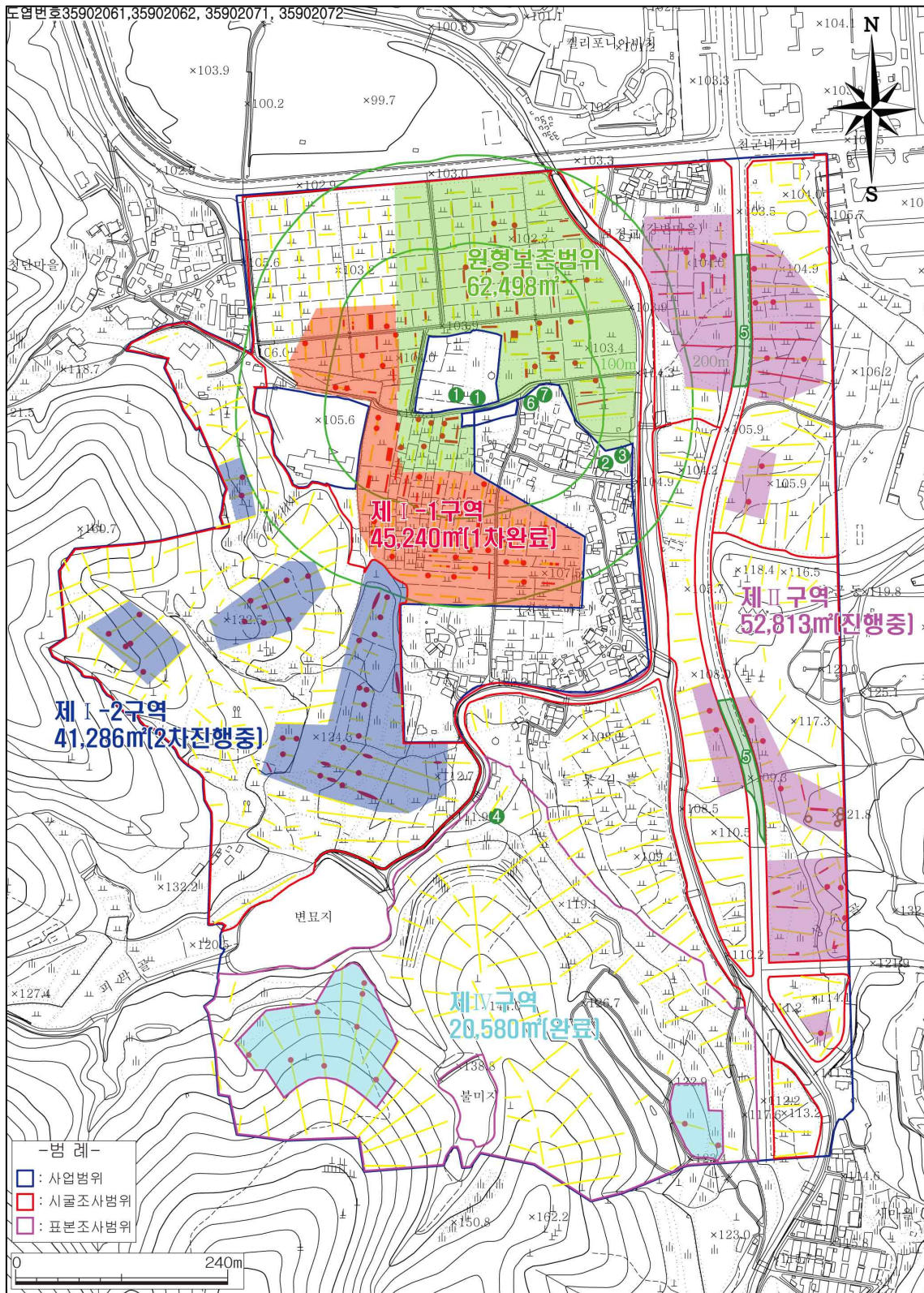
후기에 들어서면 울산식 주거지가 대부분 차지하며 토기문양은 돌류문이 주를 이룬다. 이후 울산식 주거지에 ‘ㄱ’자형의 외곽주구를 갖춘 연암동식 주거형태도 함께 확인되거나 연암동식 구만 확인되기도 한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황선문에 날알문이 시문된 토기와 토기에 파수가 부착되는 등 검단리식 토기가 출토된다. 한편, 후기 취락에서는 선양부 일대에 울산식 주거지가 정형성 있게 조성된 이후 A구역의 연암동식 주거지가 분포하는 북서편 선단부로 가면서 취락이 확장된 양상이 관찰된다.

V. 맺음말

경주 천군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조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취락이다. 금번에 소개하는 선상지 일대에서 확인된 제 I-1구역에서는 시대별 연속선상에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88기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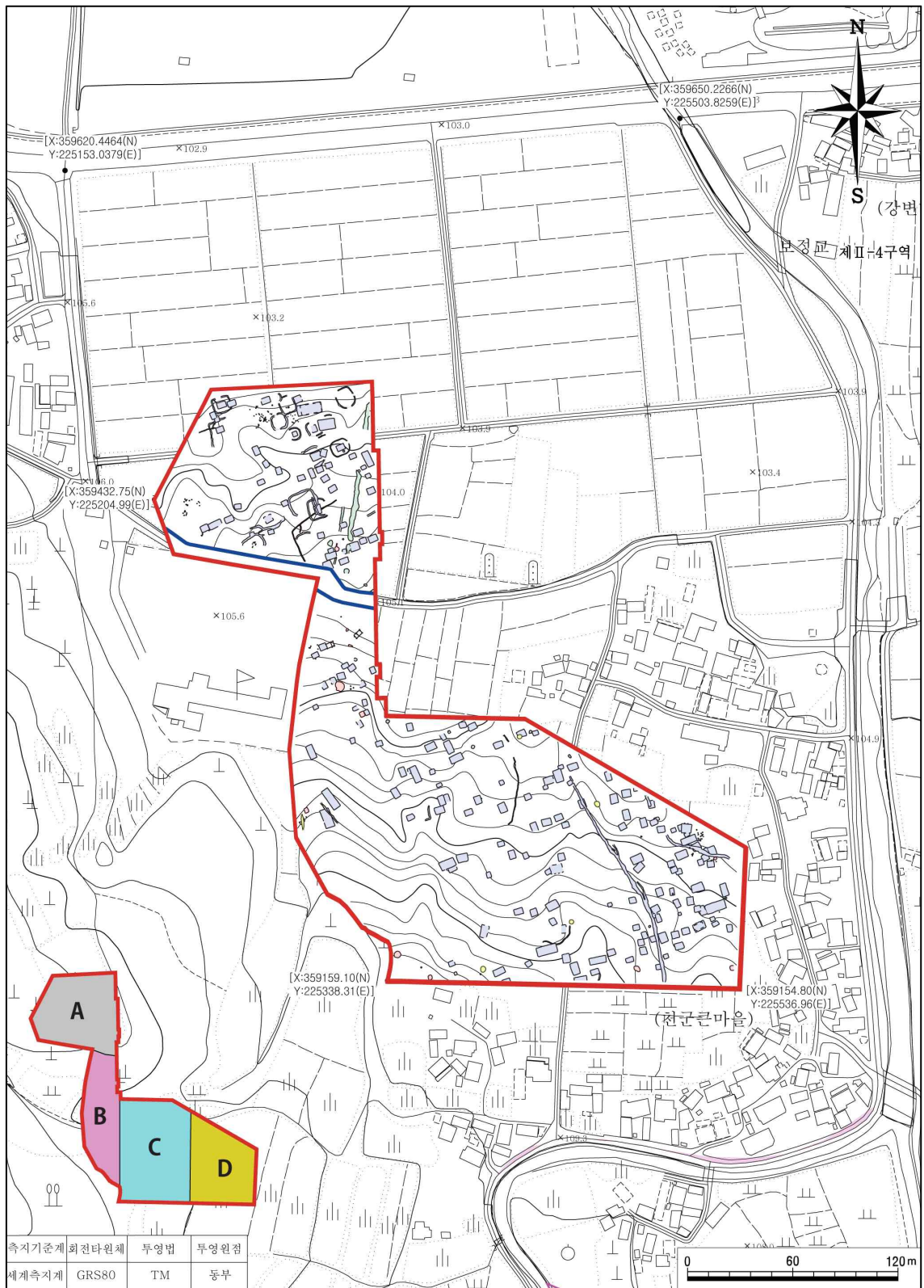
전체 취락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청동기시대 전 기간에 걸친 주거지가 확인된다. 먼저, 기존 학계에서 전기의 빠른 시기 혹은 조기문화의 특징으로 보는 석상위석식 노지를 갖추고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는 초대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세장방형과 장방형의 주거지에서는 전기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취락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는 주거지는 동남해안 후기문화를 대표하는 울산식 주거지이며, 이와 함께 연암동식 주거지도 확인되며, 검단리식 토기도 출토된다.

경주 천군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시기별 취락의 변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지와 유물이 출토된 바 향후 경주지역 및 동남해안 일대의 청동기문화 및 취락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조사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유적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도면1.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천군지구)시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현황(축척 1/6,000)

1.천군동사지(사적 제82호) 및 삼층석탑(보물 제168호), 2.호봉정, 3.천군동보호수, 4.천군동당목, 5.천군동청동기시대생활유적(성리연), 6.천군동 543유적(한국문화재재단), 7.천군동 543-1유적(한국문화재재단)



도면2.제 I-1구역 내 유구배치도 (축척 1/3,000)



사진 1. 제 I -1구역 유구배치도 (축척 1/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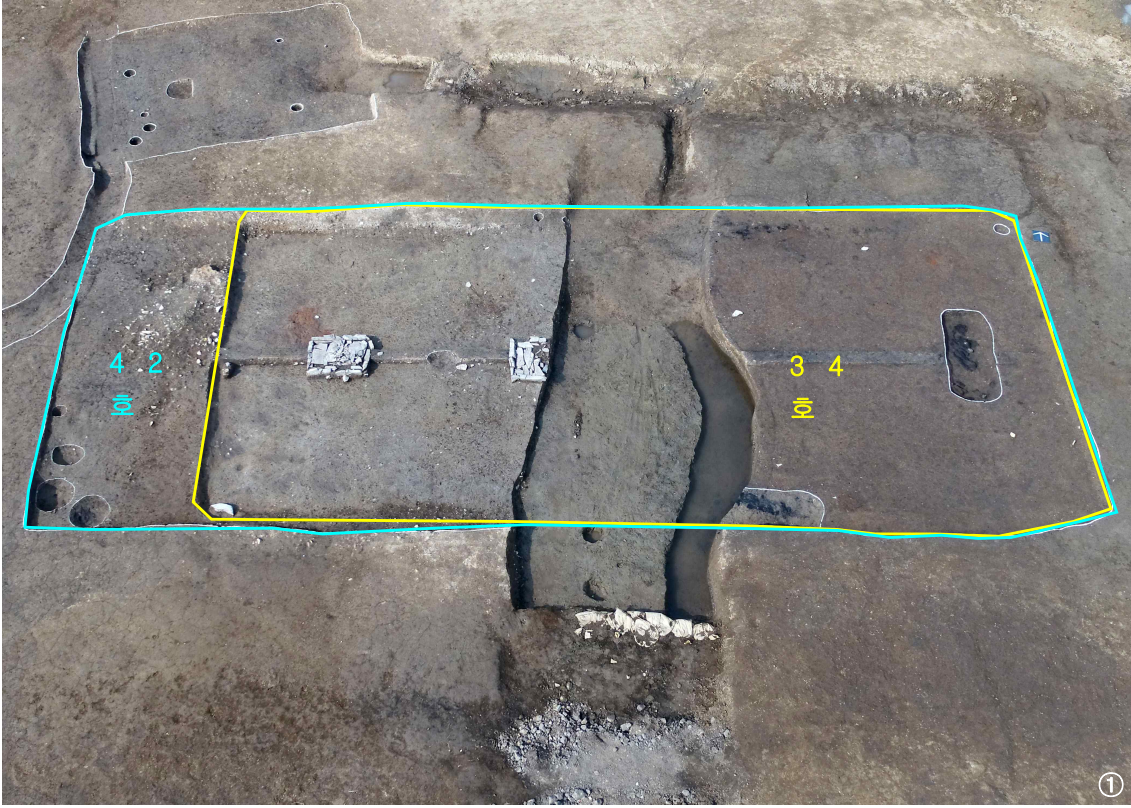


사진 2. 제 I-1-A구역 제34(先)-42(後)호 주거지(①), 제40호 주거지(②)



사진 3. 제 I-1-B구역 제1호 주거지(①), 제 I-1-C구역 제29호 주거지(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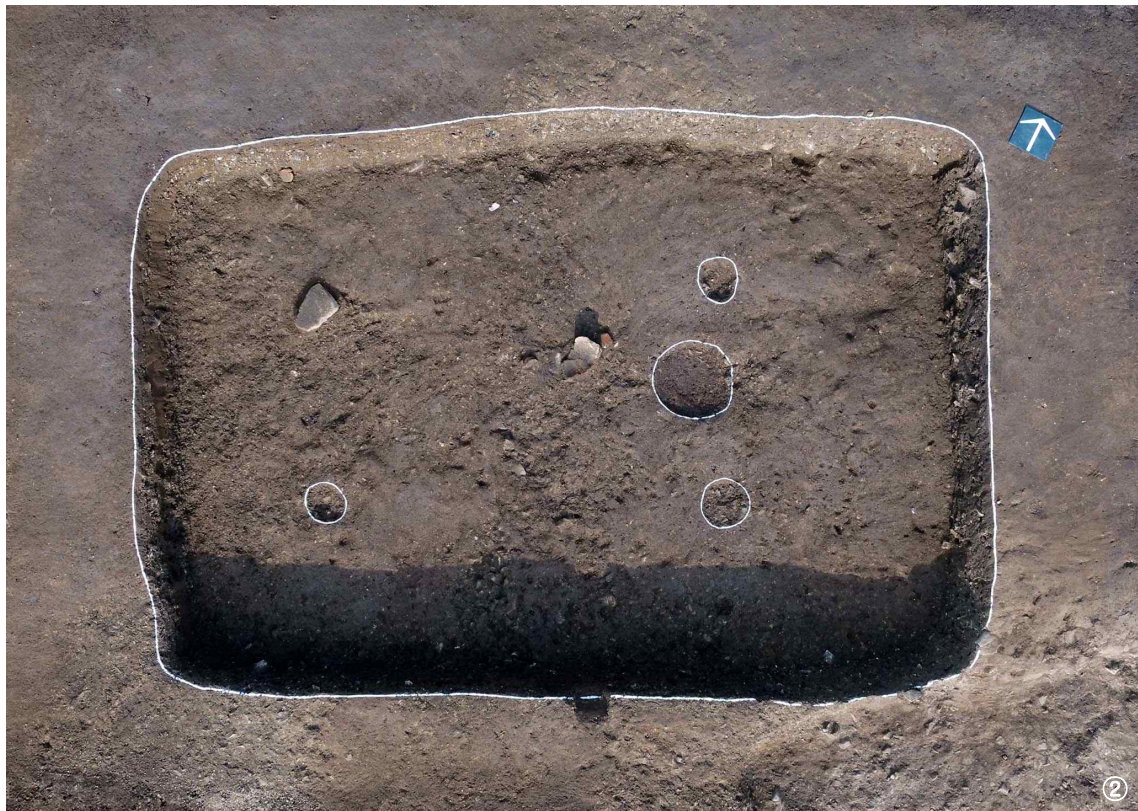


사진 4. 제 I-1-C구역 제40~42호 주거지(①), 제 I-1-B구역 제12호 주거지(②)



사진 5. 제 I-1-A구역 제1호 주거지(①), 제9호 주거지(②)



사진 6. 제 I-1-A구역 제48호 주거지(①), 제4호 연암동식 구(②)



①

②



③

사진 7. 출토유물-청동기시대 출토품 일괄(①②토기류, ③석기류)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제1,2공구)부지 내
- 포항 필화리 · 월포리 · 조사리 유적 -

남승우(삼한문화재연구원)

I. 조사개요

1. 조사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제1,2공구)부지 내 유적
- 포항 필화리·월포리·조사리 유적 -
2. 조사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529번지 일원(필화리 유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533번지 일원(월포리 유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산39-1 일원(조사리 유적)
3. 조사면적 : 전체 - 59,823㎡
필화리 유적 : 10,025㎡, 월포리 유적 : 43,778㎡, 조사리 유적 : 6,020㎡
4. 조사기간 : 2017년 02월 16일 ~ 2021년 12월 31일

5. 조사경위

유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구간(제1,2공구) 내 유적으로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면적:2,476,200㎡²⁰⁾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조선시대 에 이르는 유적 28개소(유물산포지 22개소, 고분군 2개소, 고묘군 4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중 삼한문화재연구원에서 1,2공구에 해당되는 '남송리 유물산포지Ⅳ'외 14개소(시굴 9개소, 표본 6개소)에 대해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10개소가 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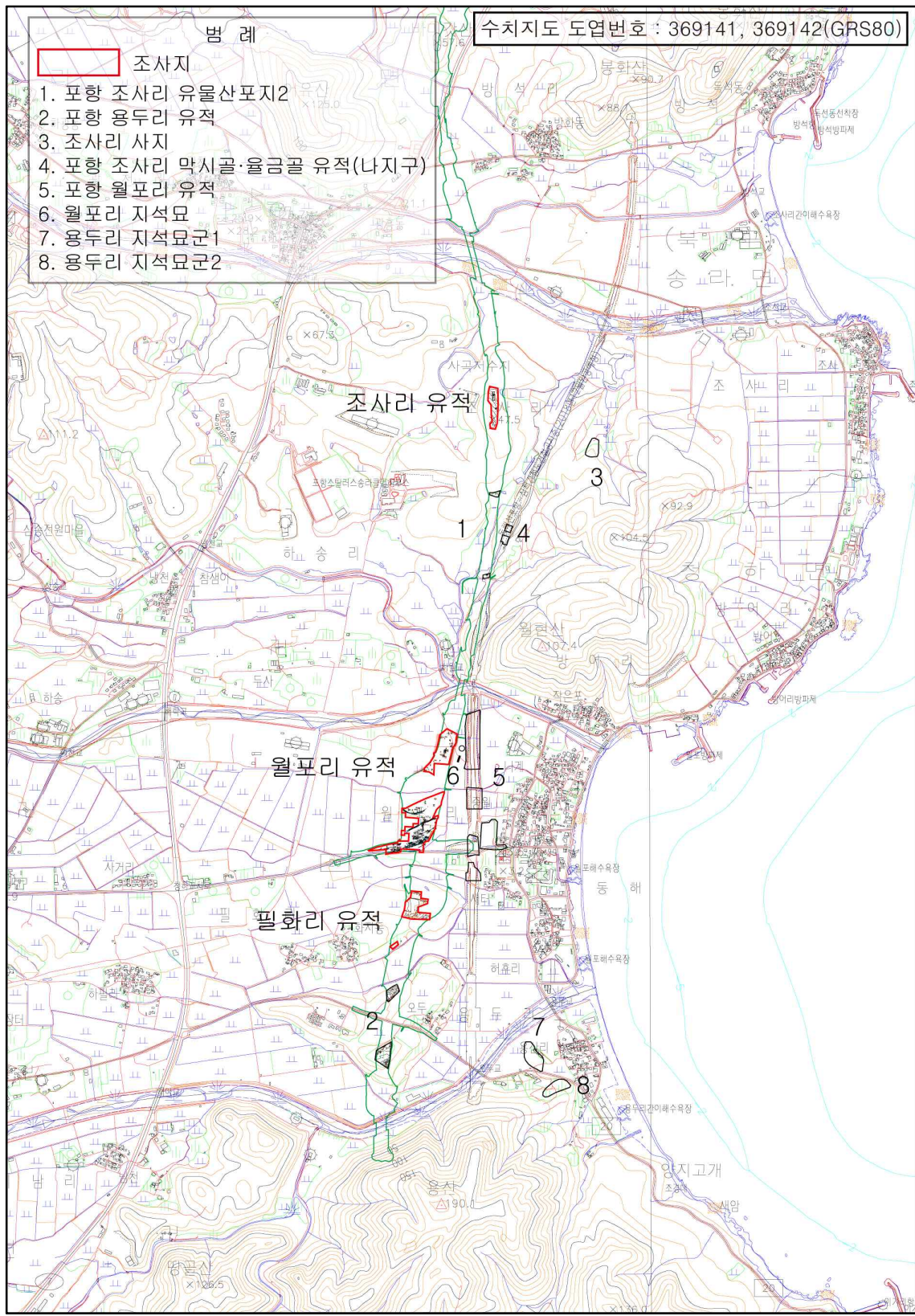
이 후 노선확정과정 에 따른 조사대상 및 조사면적 변동이 발생하여 보존조치 재협의가 이루어 졌고 협의결과, 시굴조사 면적은 229,221㎡, 표본조사 면적은 93,133㎡으로 수정되었다.

금번 발표는 2공구에 위치하는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으로 '필화리 유물산포지'와 '월포리 유물산포지', '조사리고묘군'세 유적에 해당한다.

II. 유적의 입지와 환경

조사지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부지 2공구 내에 위치하며, '필화리 유적'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529번지 일원, '월포리 유적'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533번지 일원, '조사리 유적'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산39-1일원에 위치한다.

20) 성림문화재연구원, 2015, 『포항-영덕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지도 1. 조사지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필화리 유적’은 ‘필화2리’마을의 북동쪽에 자리하는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는데, 동쪽으로 670m 떨어져 ‘동해’가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크게 구릉의 정부 일원을 포함하는 북·동사면의 I 구역과 남쪽 사면부의 II 구역으로 구분된다.

‘월포리 유적’은 저구릉성 산지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경작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중앙 소로를 기준으로 크게 북쪽의 I 구역과 남쪽의 II 구역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은 I 구역의 경우 해발고도 4~5m 내외의 ‘청하천’변의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II 구역은 해발고도 7~8m 내외의 구릉의 말단부와 접하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리 유적’은 ‘월현산(107.4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능선과 북사면에 위치하며, 사면의 북쪽으로 450m 떨어져 ‘낙동정맥’에서 발원한 ‘광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필화리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군과 월포리 II 구역 청동기시대 주거지군 간의 거리는 약 36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월포리 I 구역 주거지군과 ‘조사리 유적’묘역식지석묘까지의 거리는 약 1.45km 떨어져 있다.

조사지가 위치한 청하면과 송라면의 지세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해안 부근에는 석영조면암계(石英粗面岩系)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월현산(해발 107m)·용산(해발 190m) 등 경사가 급한 독립산이 흩어져 있다. ‘청하천’과 ‘월포천’이 서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면서 하류지역에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덕성리 부근은 단구 형태의 평탄면이 넓게 발달하여 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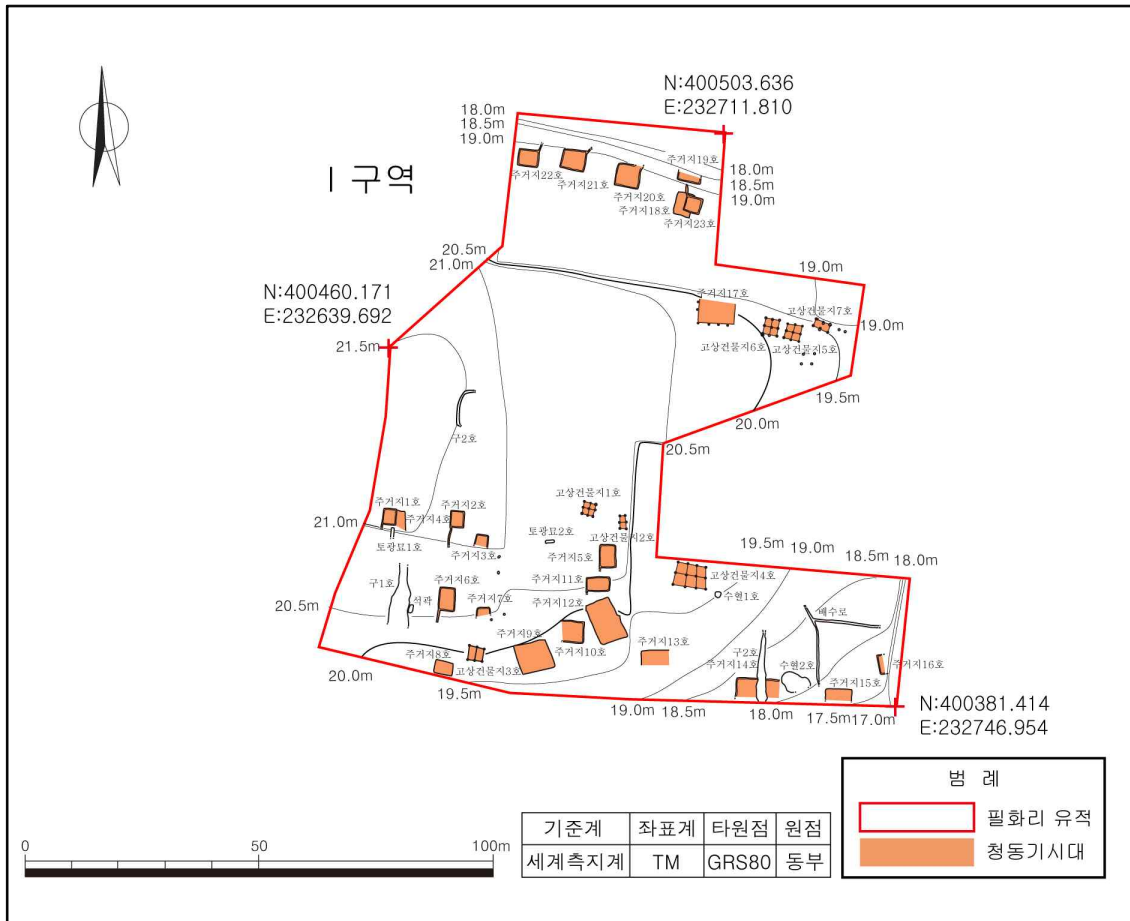
각 유적에서는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 및 생활유적이 조사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필화리 유적

동해선 철도건설사업(포항~원덕간)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구릉의 정부 및 사면일대에 위치하는데, 구릉은 해발 20m 내외로 상면은 평지에 가까우며, 전체적으로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어 있다. 발굴조사 면적은 10,025㎡이다.

표 1. 필화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현황표

연번	유구	기수	출토유물	비고
1	주거지	23	적색마연호 · 이중구연거치문발 · 이중구연 단사선문발 · 방추차 · 어망추 · 이단병식석검 · 반월형석도 · 석검 · 합인석부 · 양인석부 · 편인석부 등	I 구역
2	고상식건물지	8	.	I · II 구역



도면 1. 필화리 유적 유구배치도(1:1,500)



사진 1. 필화리 유적 I 구역 전경

1) 주거지

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23동 · 고상식 건물지 8기 등 모두 31기로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두 I 구역에서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I 구역 중앙을 제외한 전면에 분포하고 있으며, I 구역 고상식건물지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높은 구릉 정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해발 18.5~21.5m 선상에서 기반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지나 방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노지는 수혈식과 평지식, 위석식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주거지에 ‘口’자형 벽구와 외부돌출구가 설치되어있으며, 벽구에서 벽주혈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외부돌출구는 벽구와 연결되어 경사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다. 주혈의 배치양상은 주주혈이 4·6주식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벽주혈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벽주혈만 설치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구릉 정상부 평탄지역에는 주거지가 입지하지 않고 공지로 확인된다. 후대 경작을 위한 삭평으로 유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후기의 취락에서 확인되는 광장과 같은 공공의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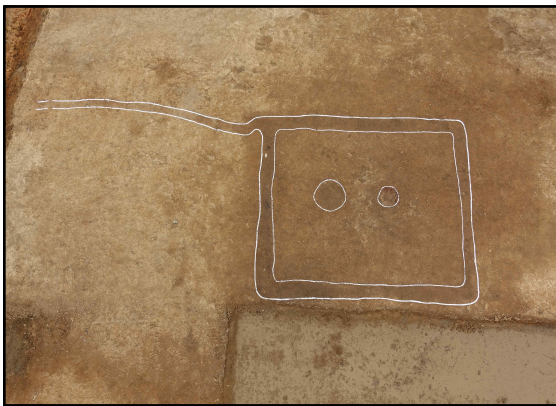


사진 2. 주거지 2호 전경



사진 3. 주거지 17호 전경

유물은 적색마연호, 이중구연단거치문발, 이중구연단사선문발, 무문토기호, 무문토기발, 어망추 등의 토도류와 석검, 석도, 석부, 지석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2) 고상식 건물지

고상식건물지는 I 구역에서 7동, II 구역에서 1동 등 모두 8동이 조사되었다. 주로 II 구역 해발 19~20.9m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6·9·12주식으로 비교적 다양하다. 취락의 중앙으로 구릉정부를 따라 해발고도가 높은 지대를 선점하여 분포하는데, 고상식건물지 사이에는 주거지가 입지하고 있지 않다. 기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크기는 길이 780~1,800cm, 너비 180~510cm이다. 각 주혈의 크기는 직경 17~64cm, 깊이가 5~53cm이다. 내부에는 회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 등으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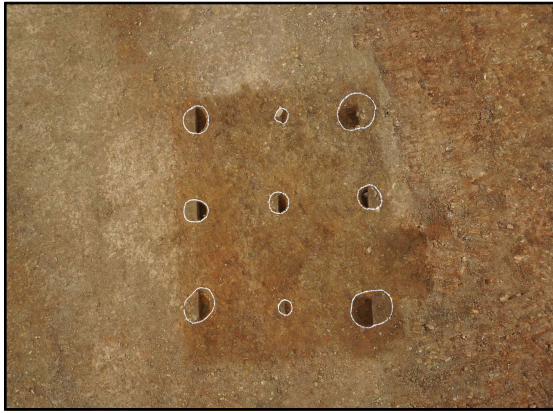


사진 4. 고상식건물지 2호 전경



사진 5. 고상식건물지 4호 전경

2. 월포리 유적

동해선 철도건설사업(포항~원덕간)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의 동쪽으로 포항-삼척간 철도건설과 관련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인 '포항 월포리 유적'²¹⁾이 조사된 바 있다. 본 유적 I 구역과 '포항 월포리 유적' 사이에는 '월포리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어 이 일대가 모두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임을 알 수 있다. 토양환경지도상 I 구역은 하성평탄지에 해당하며, II 구역은 곡간지/선상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면적은 43,778㎡이다.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총 50기로 주거지 40동 · 수혈 5기 · 구 5기이다.

표 2. 월포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현황표

연번	유구	기수	출토유물	비고
1	주거지	40	절상돌대문편 · 각목돌대문편 · 적색마연호 · 적색마연옹 · 적색마연개 · 이중구연단사 · 선문발 · 날알문과수부발 · 공열문토기 · 어망추 · 석검 · 석검 · 석도 · 석촉 · 석부 · 지석 등	I · II 구역
2	수혈	5	원형점토대토기 · 날알문토기 · 석검 등	
3	구	5	무문토기 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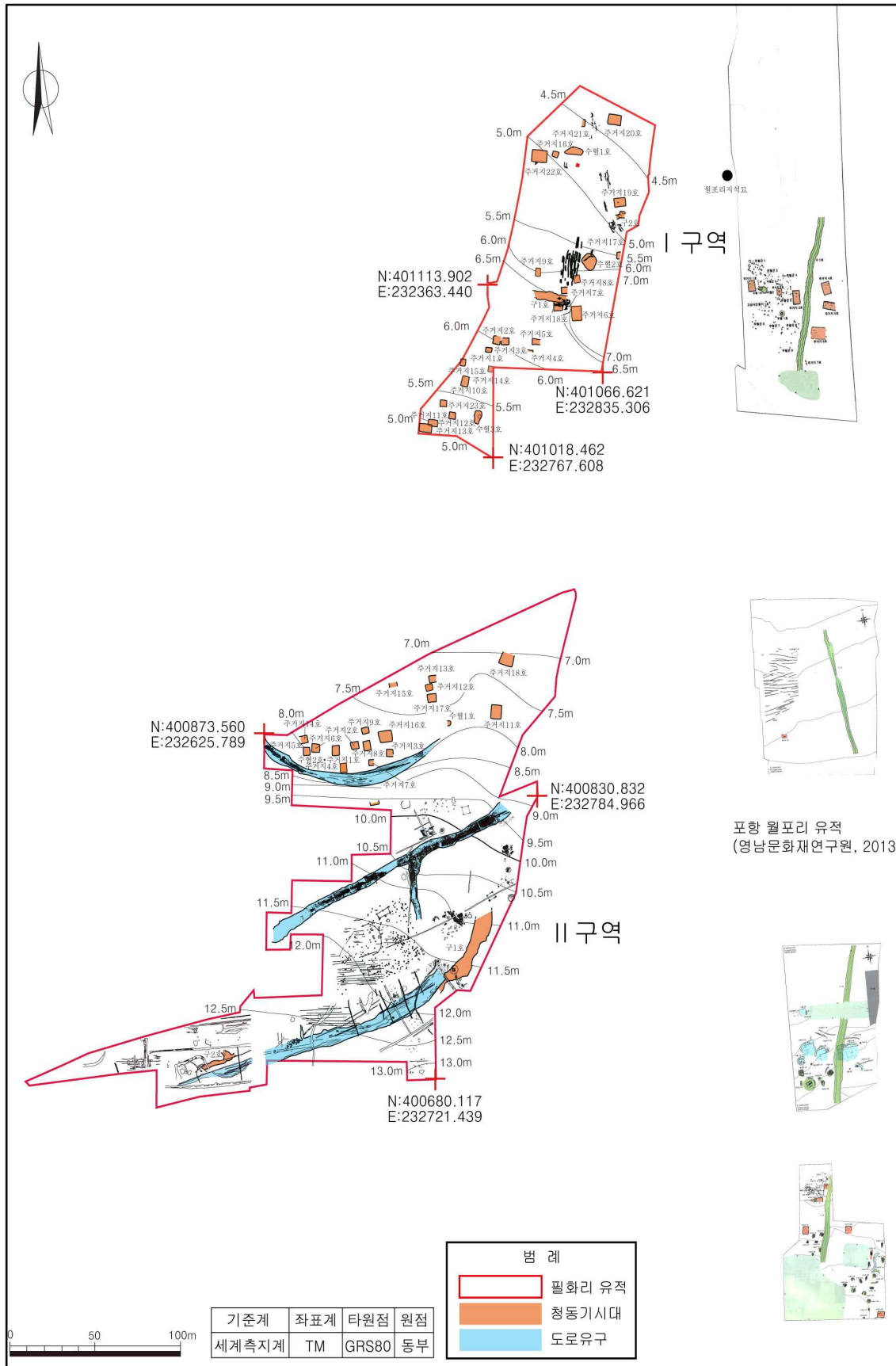
1) 주거지

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I 구역 23동, II 구역 17동으로 모두 40동이다.

주거지는 I 구역 서중앙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서 확인되며, II 구역에서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은 북쪽에서만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 4.1~9.8m 선상에서 기반층인 갈색사질점토층과 암갈색사질점토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지나 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는 길이 354~940cm, 너비 242~696cm, 깊이 1~51cm 정도로 소형·중형·대형의 주거지로 분류된다.

21) 영남문화재연구원, 2013, 『浦項 月浦里 遺蹟』.



도면 2. 월포리 유적 유구배치도(1:3,000)

내부시설은 노지와 수혈, 벽구가 설치되어 있다. 노지는 수혈식과 평지식, 위석식으로 나누어지며, 위석식노지는 석상위석식과 위석식으로 구분된다. 노지는 I 구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인되나, II 구역에서는 주거지 18호에서만 확인된다. 주거지 18호는 II구역 내 주거지 밀집군이 아닌 북동쪽에 단독으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벽구는 I 구역 주거지 7호에서만 조사되었으며, 평면형태는 'ㄱ'자형이다.



사진 6. I 구역 주거지 6호 전경



사진 7. I 구역 주거지 20호 전경



사진 8. II 구역 주거지 1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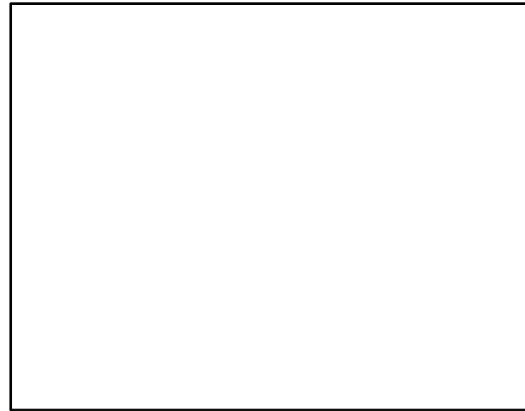


사진 9. II 구역 주거지 2호 전경

유물은 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발, 이중구연단사선호, 적색마연호, 적색마연발, 날알문파수부발 등의 토도류와 석검, 석도, 석촉, 합인석부, 편인석부, 지석, 미완성석기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2) 수혈

수혈은 I 구역에서 3기, II 구역에서 2기 등 모두 5기가 해발 4.8~8.0m 선상에서 조사되었다. 유구는 기반층인 갈색사질점토층, 암갈색사질점토층, 역석층 등을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구형, 원형, 부정형으로 확인된다. 크기는 길이 46~1,140cm, 너비 272~886cm, 잔존깊이 27~114cm이다.

I 구역에서 조사된 수혈 1호는 평면 구형으로 상면에서 바닥까지 원형점토대토기, 날알문파수부

발 등의 토기편이 역석사이에 겹겹이 쌓여있었다. 수혈 1호의 내부수혈에서 적색마연토기호가 출토되었고 바닥에 가까운 내부토에서 배모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수혈 2호는 평면 원형으로 내부수혈 7기가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다량의 원형점토대토기편과 무문토기발 구연부가 층위에 관계없이 출토되었다. 수혈 3호는 내부수혈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원형점토대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사진 10. I 구역 수혈 1호 전경



사진 11. I 구역 수혈 2호 전경



사진 12. I 구역 수혈 3호 전경



사진 13. I 구역 수혈 1호 유물출토상태

3. 조사리 유적

유적은 포항-영덕고속도로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며, 발굴조사 면적은 6,020㎡이다.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묘 2기이다.

표 3. 조사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현황표

연번	유구	기수	출토유물	비고
1	묘	2	적색마연호 · 석검 · 석촉 · 함인석부 · 무문토기 편	묘역식 분묘 · 주구묘

1)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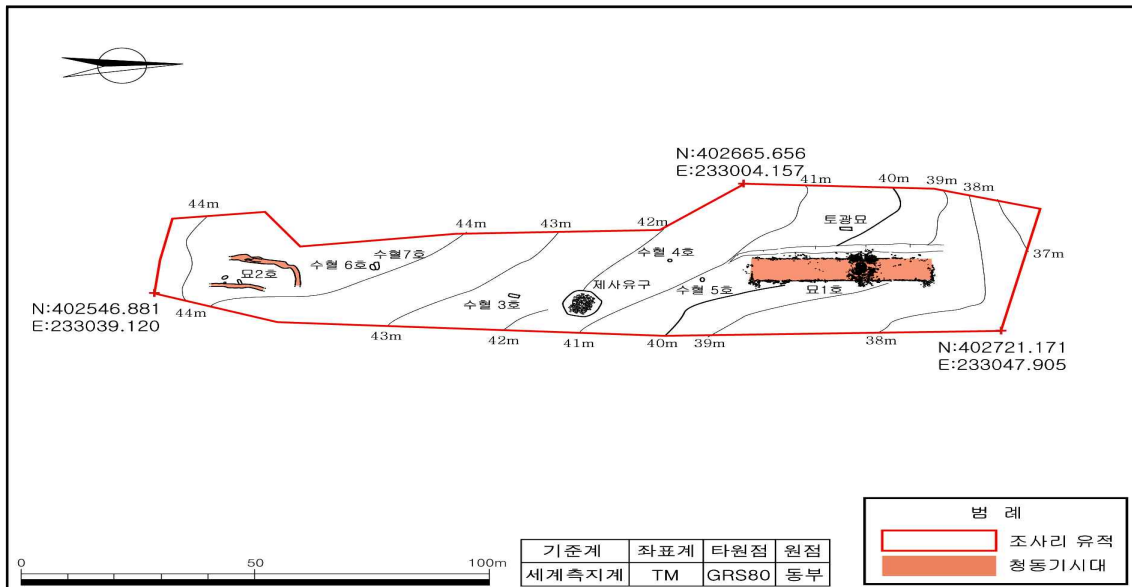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묘는 구릉의 북사면에서 조사된 묘 1호(묘역식지석묘)와 구릉의 정부에서 조사된 묘 2호(주구묘) 등 2기가 조사되었다. 묘역식지석묘는 매장주체부 주위를 방형이나 원형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적석이나 부석의 형태로 묘역시설을 축조한 무덤양식이다.

유구는 조사지 북쪽 해발 39~41m 선상에서 단독으로 조사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다. 크기는 길이 3,890cm, 너비 685cm, 높이 37~50cm 이다. 유구의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유구는 기반층 위에 조성된 상태인 가운데 원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먼저 묘역시설은 가장자리를 따라 원지형을 일부 굴착한 후 평면 방향의 경계 구획석을 놓고 각종 토사와 역석을 뒷채움하는 방식으로 쌓았는데, 특히 최하단석부터 남고-북저의 원지형에 가로놓혀 쌓는 방식에 따라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가면서 최대 5단까지 겹겹이 쌓아올려 내부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사진 14. 조사리 유적 원경



도면 3. 조사리 유적 유구배치도(1:1,500)



사진 15. 묘 1호 전경(묘역식지석묘)



사진 16. 매장주체부 전경



사진 17.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서쪽 일대는 경계 구획석을 따라 주구를 설치하였다. 잔존하는 크기는 길이 4,280cm, 너비 410cm, 깊이 28cm이다. 주구는 서쪽 구획석을 설치하기 위해 원지형을 일부 굴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연장하여 굴착하였다. 내부에는 지속적인 유수의 작용에 따라 각종 토사가 퇴적된 가운데 단면은 일부 요철이 있으나 대체로 완만한 'U'자상으로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묘역시설 내부에는 중앙선상에서 약간 북쪽(북단벽→22.5m 이격)으로 치우쳐 크기 50cm 내외의 천석과 할석이 무질서하게 채워져 있는 적석더미가 일부 노출되었다. 잔존하는 범위는 대략 길이 1,090cm, 너비 710cm이다. 후대 교란 등과 같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양쪽의 경계 구획석 외역까지 이탈됨에 따라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관묘로 장축방향은 80°이며, 묘역시설과 대체로 직교되는 형태이다. 크기는 길이 128cm, 너비 47cm, 깊이 34cm이다. 축조방식은 묘역시설 내 원지형을 일부 굴착한 후 크기 50cm 내외의 납작한 판석을 1벌 가량 깔아서 시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양단벽의 최하단석은 가로놓혀 쌓았으며, 상단의 벽석은 세워쌓아 모두 2단으로 축조하였으며, 양장벽은 단벽석에 맞물리게 크기 40cm 내외의 천석 또는 할석을 가로놓혀 쌓는 방식으로 3단 가량을 쌓았다. 이후 바닥에는 다시 잔자갈을 1벌 가량 깔았다. 또한 벽석의 뒷편에

는 길이 311cm, 너비 245cm의 범위에 걸쳐 크기 50cm 내외의 보강석을 이용해 뒷채움하였다. 북장벽 중앙에서 동단벽으로 30cm 가량 치우친 바닥에서 유경식석검이 출토되었으며, 석관묘 주변에서 석촉, 합인석부,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묘 2호는 주구만 확인되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구 내부에서 적색마연토기호 1점이 출토되었다.

IV. 소찰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묘·수혈·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주거지

주거지의 속성은 크게 장단비를 통한 평면형태, 면적을 통한 규모, 내부시설인 노지, 수혈, 벽구, 외부돌출구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중 3/4이상 잔존하여 평면형태 및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1) 평면형태 및 규모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구릉의 정부 및 사면에 위치(필화리 유적)하는 주거지 23기와 하천변(월포리 유적)에 위치하는 주거지 40기 등 모두 63기이나, 그 중 평면형태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 43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단축비율에 따라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기준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1:1.25미만인 것을 방형, 1:1.25~1:1.65미만인 것을 장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장방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장단비로 구분해 보면, 방형 주거지는 26기로 전체 60.5% 비율을 차지하며, 장방형 주거지는 17기로 39.5%의 비율로 확인된다. 주거지의 규모는 면적을 통하여 구분하였으며, 19㎡이하를 소형, 20~40㎡를 중형, 41~79㎡를 대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를 살펴보면, 소형주거지는 53.5%, 중형주거지는 32.5%, 대형주거지는 14%의 비율로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평면형태와 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면형태가 방형에 소형인 것이 17동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중형은 8동, 대형은 1동이 조사되었다. 장방형에 소형과 중형은 각 6동씩 조사되었으며, 대형은 5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공반유물은 소형/방형주거지에서 적색마연호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대형/장방형주거지와 대형/방형주거지에서만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어망추는 평면 장방형에 중/대형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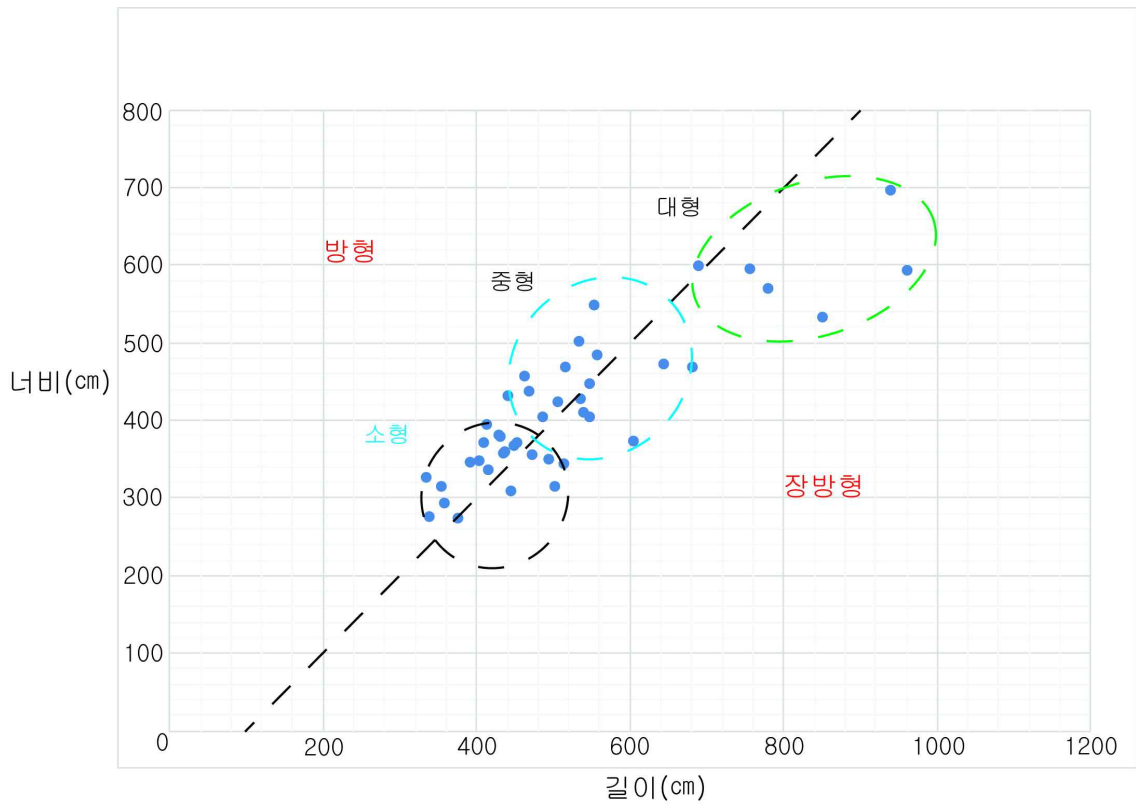


표 4. 주거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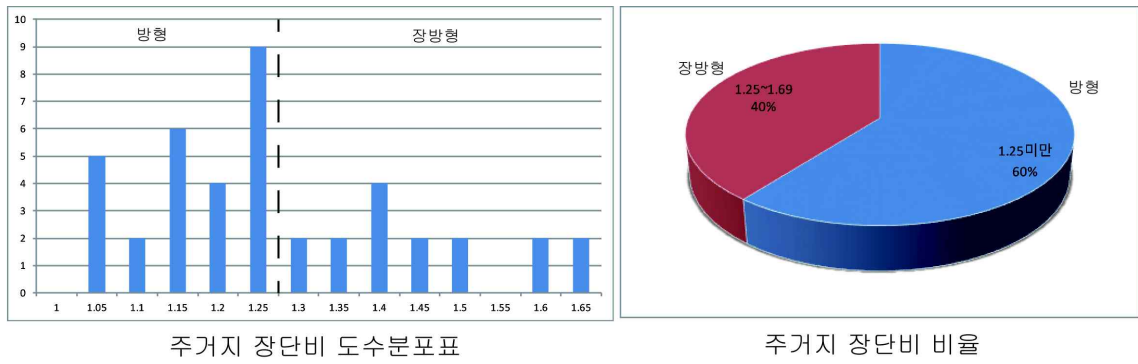


표 5. 주거지 평면형태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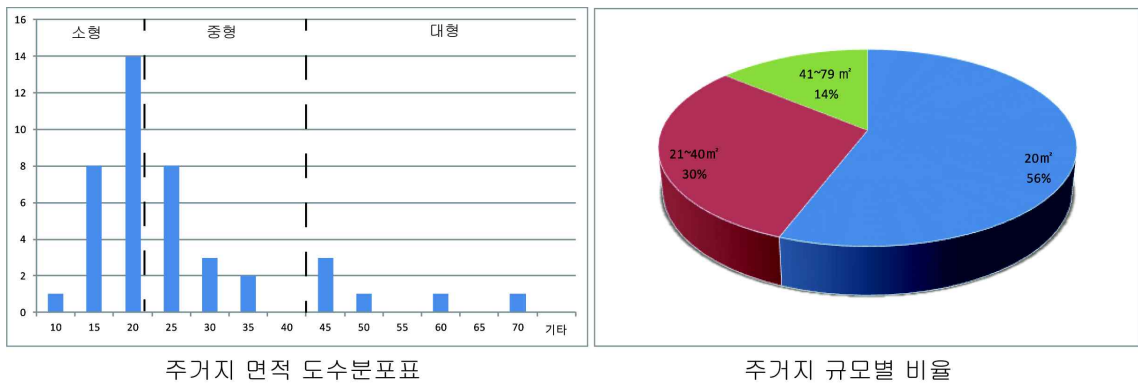


표 6. 주거지 규모에 의한 분류

2) 내부시설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외부돌출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주혈의 배치, 노지의 수·형태 등은 형식설정에 이용되는 주요한 속성이다.

주혈은 주거지의 상부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속성으로 주혈의 배치는 건물의 형태, 내부공간의 활용, 증·개축을 확인할 수 있다. 크게 주기동인 주주혈과 벽체를 세우기 위한 벽주혈로 구분되며, 이러한 형태는 주거지의 구조 중 지붕형태 및 내부 공간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혈의 배치에 따라 크게 주혈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 주주혈만 설치된 주거지, 벽주혈만 설치된 주거지, 주주혈과 벽주혈이 모두 설치된 주거지 등으로 구분된다.

주혈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지는 34동이며, 주주혈만 설치된 주거지는 11동, 벽주혈만 설치된 주거지는 14동, 주주혈과 벽주혈이 모두 설치된 주거지는 필화리 유적에서만 확인되며, 4동이다.

노지는 63동의 주거지 중 27동에서 확인되었다. 노지의 구조는 상면을 완만한 'U'자형으로 굴착한 수혈식노지와 상면에 아무런 시설 없이 그대로 이용한 평지식노지, 판석을 노지 주위로 둘러 위석식 노지가 있다. 이 중 위석식 노지는 다시 바닥에 판석을 깔 석상과 판석을 깔지 않는 위석식으로 구분된다. 수혈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10동이며, 평지식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12동, 위석식 노지는 설치된 주거지는 5동이다. 주거지 내 노지는 모두 1기만 설치되어 있다.

그 외의 내부시설로는 벽구 및 외부돌출구가 있다. 벽구와 외부돌출구는 대부분 필화리 유적에서 확인되며, 월포리 유적 I 구역에서 1동이 확인되었다. 벽구는 건물의 내부 벽면 아래에 굴착한 시설로 배수, 제습, 집수, 벽 기초시설 등으로 보고 있다. 유적에서는 22동의 주거지에서 벽구가 확인되는데, 형태는 대부분 'ㄱ'자형이며, 일부 'ㄷ'자형이 아닌 형태는 사면의 아래에 위치하여 유실에 따른 일부잔존으로 생각된다. 외부돌출구는 일반적으로 배수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벽구와 연결되어 벽면을 따라 내부로 유입된 우수를 주거지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적에서 이러한 외부돌출구는 11동에서 확인되는데, 벽구가 설치된 모든 주거지에 설치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면에 따른 유실로 삭평되어 일부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수혈

유구는 월포리 I 구역에서 3기, 월포리 II 구역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II 구역에서 조사된 수혈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I 구역에서 조사된 수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월포리 I 구역에서 조사된 수혈은 구역 내 남쪽가장자리, 중앙, 북쪽 등 각각 독립된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데, 구조는 수혈식에 평면형태는 구형, 원형, 부정형으로 다양하다.

수혈 1호는 I 구역 북쪽에 위치하며, 평면 구형이다. 내부에는 다량의 천석을 포함한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상면에서부터 바닥까지 원형점토대토기, 날알문토기발, 날알문토기호 등이 천석사이에서 겹겹이 쌓여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날알문파수부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석검 등의 석기류도 출토되었다. 내부 수혈에서 적색마연토기호가 출토되었다.

유구의 중앙 바닥과 가까운 내부토에서 배모양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하는 저부의 형태로 보아 평면형태는 선미를 제외하면 타원형에 가깝

다. 선미는 직각으로 처리하였으며, 바닥은 편평하다. 내·외면에 별다른 문양은 확인되지 않으며, 크기는 저경 10.3~15.4cm, 높이 8.4cm이다.



본 유적에서 배모양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청동기시대 해안과 인접한 하천변에 입지한 취락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수혈은 II구역 2호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량이 유물이 확인된다.

사진 18. 월포리 유적 출토 배모양토기

3. 묘

묘역식 지석묘는 매장주체부 주변의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방형이나 원형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적석이나 부석의 형태로 묘역시설을 축조한 무덤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형식적으로는 개석식지석묘에 속하지만 일정 공간을 돌로써 매장주체부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 지석묘와는 다른 점이다. 유적에서 조사된 묘역식 지석묘는 완만한 구릉사면의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약 1.7km 떨어져 '동해'가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묘역식지석묘는 '창원 덕천리 유적', '경주 전촌리 유적'과 같이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에 대형의 묘역이 축조되기 시작하는데, 유적에서 조사된 묘역식지석묘도 규모와 내부에서 출토된 유경식석검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이후에 축조된 유구로 판단된다. 아울러 동일한 시기의 취락유적인 '월포리 유적'이 남쪽으로 1.45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월포리 유적' 집단의 분묘 및 제의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4. 출토유물 및 시기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발, 이중구연단사선문호, 날알문파수부발, 적색마연토기발, 적색마연토기호, 무문토기발, 원형점토대토기, 석검, 석도, 석촉, 석부, 미완성석기, 지석, 용도미상석기 등 다양하다. 이 중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유물로는 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날알문파수부 발, 적색마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유경식석검 등이 있다.



사진 19. 청동기시대 전기 출토유물



사진 20.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출토유물

돌대문토기는 톱니바퀴모양(원주형), 마디모양(절상각목문), 꼭지모양(유사형)으로 구분되는데, 톱니바퀴모양에서 절상각목돌대문(긴형태-짧은형태), 절상돌대문, 유상돌대문형태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²²⁾ 유적에서는 절상각목돌대문토기와 돌대에 거치문이 시문된 토기가 월포리 1 구역 북쪽으로 치우친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이중구연토기(이중구연·이중구연거치문·이중구연단사선)는 ‘필화리 유적’과 ‘월포리 유적’의 중형이상의 규모를 가진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다. 날알문토기는 방형·장방형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를 참조하여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토기의 문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주거지, 수혈, 구 등의 생활유구는 청동기 전기전엽에서 후기에 해당하며, ‘조사리 유적’에서 조사된 분묘 유구는 유구의 규모와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유경식석검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2) 삼한문화재연구원, 2018, 『대구·경북 청동기시대 문화』.

v. 맺음말

유적은 동해를 조망하는 저지성 구릉정부 및 사면에 위치하는 생활유적인 '필화리 유적'과 분묘유적인 '조사리 유적', '청하천'변에 위치하는 '월포리 유적'으로 구분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63동이 조사되었으나 후대 교란 및 사면부 유실로 인해 평면형태 및 규모를 알 수 있는 주거지 43동을 분석하였다. 그 중 소형과 방형의 비율이 높으며, 벽구 및 외부돌출구가 설치된 주거지는 월포리 1 구역 주거지 7호를 제외하면 모두 구릉의 정부 및 사면부에 위치하는 '필화리 유적'에서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 노지, 벽구, 외부돌출구가 확인된다. 주혈의 배치는 4주식, 6주식이 일부 확인되며, 벽주혈과 같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노지는 대부분 단수의 수혈식 또는 평지식이며, 일부 이른 시기의 주거지에서는 위석식노지도 확인된다. 벽구는 '口'자형이 대부분이며, 외부돌출구와 이어져 배수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장벽과 단벽이 연결되는 모서리에서 수혈이 확인되어 저장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혈은 5기가 조사되었으며, 1기를 제외한 4기는 모두 원형점토대토기, 대각 등의 늦은 시기의 유물이 확인된다. 특히 '월포리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 1호에서는 날알문토기와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어,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접변 양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유구로 판단된다.

유구의 형태와 출토유물로 보아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전엽에서 후기에 이르는 유적으로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는 '포항 월포리 유적'²³⁾과 더불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3) 주2)의 전계서.